


논개정신 선양을 위한 제4회

논개 詩 낭송 대회

의암주논개 탄신 제440주년



일 시 2014 9. 27 (토) 오후 12시 30분
주 최 사) 의암논개정신선양회, 한국문인협회 장수지부
주 관 한국문화교육개발원
후 원 전라북도, 장수군, 농협중앙회 장수군지부
장 소 전북 장수군 장수읍 한누리로 393 한누리전당 소공연장 3층

 한국문화교육개발원

교육전문법인 www.kcedi.kr 063.255.6464

대 회 사



사)의암논개정신선양회 회장 양 해 도

‘제4회 논개 시낭송 대회’를 개최하게 되어 기쁘고 감사합니다.

송하진 도지사님을 비롯하여 최용득 장수 군수님, 오재만 장수군의회 의장님, 양성빈 도의원님 바쁘신 일정에도 논개님을 위한 선양사업에 깊은 관심과 배려를 해 주심에 선양회 회원님을 대표하여 감사인사 드립니다. 지역에서 깊은 관심이 있으셨기에 오늘 이 자리도 4회째를 맞이하는 뜻 깊은 자리를 마련할 수 있었습니다.

전국에서 많은 분들이 경연을 참여하고 장수를 찾아주신 점 기쁘고 감사한 마음입니다.

시낭송 경연을 마련하신 모든 분께 감사드리며 행사 준비를 위해 수고해 주신 한국문화교육개발원 박경옥 대표께도 깊은 감사와 고맙다는 인사를 드립니다.

우리고장 장수는 삼절(三節)五義의 전통에 빛나는 고장이며. 예로부터 인심고박(人心古朴)이요. 태고순풍(太古淳風)이며. 자연 그대로 인정 있고 순박한 고장입니다.

의암 주논개 열사를 군민의 정신적 지주로 받들면서 그 숭고한 열을 계승하고자 군민들은 매년 음력 9월 3일 논개열사 탄신일을 군민의 날로 정하여 논개 제전의 다채로운 추모행사를 거행 해 왔습니다. 그 높으신 논개님의 열을 장수 군민의 마음에서 전 국민들의 마음에 새겨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는 논개정신선양을 위함이고 청소년들의 살아있는 애국정신 교육의 지표가 될 것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함께 하신 여러분은 역사적 주인공입니다. 이 정신이 후손만대에 이르기까지 논개님의 열이 계승 발전되도록 끊임없는 애정과 깊은 관심으로 협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 자리에 함께해주신 여러분 하시는 일에 행운과 건강이 함께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 합니다.

2014년 09월 27일

사) 의암주논개정신선양회 회장 양 해 도

격 려 사



전라북도지사 송 하 진

먼저 2덕(二德)·3절(三節)·5의(五義) 등 선비문화의 발상지이며, 애국충절의 역사와 문화가 깃든 장수에서, 장수의 정신적 지주이기도 한 의암 논개정신을 기리기 위한 ‘제4회 논개 시낭송 대회’ 개최를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의암 주논개님께서는 임진왜란 당시 2차 진주성 싸움에서 왜장을 꺼안고 남강에 투신함으로써 스스로 애국 애족하는 민족의 길을 가르치고, 위험에 빠진 나라를 구하고자 수호신으로서의 역할을 하였다는 점에서 참다운 한국 여성의 상징이라 하겠습니다.

특히 시인이 민족의 혼을 담아 낸 영혼이 담긴 작품을 시낭송을 통하여 노래하는 시낭송 대회는 논개정신의 숭고한 뜻을 기리기 위한 매우 뜻 깊은 행사라는 점에서 더욱 의미가 있다 하겠습니다.

이와 같이 남다른 역사성을 지니고 있는 충절의 고장 장수에서 논개정신의 소중함을 일깨우고 재조명하여 일반인들에게 널리 알리고자 함은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 온고지신의 마음을 되새기고 우리 문화자산을 지키는 일입니다. 그동안 논개정신의 맥을 이어가기 위해 굶은일을 마다하지 않고 묵묵히 남다른 애정과 끈기를 가지고 자존심을 지켜온 ‘의암주논개정신선양회’를 비롯하여 행사를 준비하신 한국문화교육개발원과 그 외 여러분께 다시 한번 깊은 감사와 격려를 드립니다.

아무쪼록 의암주논개정신선양회 및 장수군 발전협의회를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의 건승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2014년 09월 27일

전라북도지사 송 하 진

축 사



장수군수 최 용 득

탄신 제440주년을 기념해 논개정신 선양을 위한 논개 시낭송 대회를 개최하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고 참석해주신 송하진 도지사님 정말 고맙습니다. 또한 전국 각 지역에서 논개골 장수를 찾아주신 시낭송 애호가여러분 진심으로 환영하고 고맙다는 인사를 드립니다.

장수군은 백두대간을 잇는 적국 8대 종산 중 하나인 장안산을 주봉으로 힘차게 내리뻗은 능선들이 웅장한 기개를 간직하고 있는 곳으로 임진왜란 때 왜장을 껴안고 진주 남강에 투신해 위기에 처한 나라를 구한 의암 주논개님이 태어난 충절의 고장입니다.

논개님의 충절은 그동안 수많은 시인과 수필가, 소설가들로부터 작품화 되었으며 수백 년간을 문학작품의 소재로 남아 우리들 가슴속에 전해져 왔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군에서는 매년 탄신을 기념해 축제를 개최하며 주논개님의 거룩한 나라사랑 정신을 후세에까지 널리 알릴 계획입니다.

전국에서 많은 분들이 장수를 찾아 '논개 시낭송 대회'를 개최 함은 짧은 인생을 불꽃처럼 살다 간 논개님의 고귀한 애국정신을 다시 한 번 되새기고 잊혀져가는 민족정신과 올바른 역사관을 계승발전시키는 뜻깊은 자리입니다. 논개정신 선양을 위한 시낭송 대회 개최를 하기 위해 애써주신 양해도 (사) 의암주논개정신선양회 회장님과 문인협회 장수군지부장님, 그리고 문화교육개발원장님과 관계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2014년 09월 27일

장수군수 최 용 득

축 사



나 종 우(문학박사 ·원광대 명예교수)

논개의 忠 . 義 정신을 선양하는 시낭송인 여러분!

지금은 새로운 국제질서 속에서 어제 보다 독립적이고 주체적인 입장에서 정치적으로나 경제적으로나 문화적으로 새로운 정통성을 확립하지 않으면 안 되는 시대입니다.

따라서 지금 한국이 처해있는 시대적 상황과 역사적 사명이 우리들로 하여금 한국인의 진정한 모습과 그 잠재된 능력을 새롭게 평가 할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시대를 맞이하여 시를 낭송하는 전문적인 또 하나의 ‘시낭송가’에 술인이 탄생되는 시대입니다.

특히, 시를 통하여 그 문학적 가치와 흘러간 역사 속에 녹아있는 인물의 정신문화를 이끌어 가는 시낭송인께 사학자로서 깊은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외부 민족으로부터 침략을 많이 받았던 우리민족은 다른 민족과 달리, 저항하다가 힘이 부치면 피난을 간다거나 항복을 한다거나 하지 않고 최후까지 내 땅을 지키려는 의식이 강했었습니다.

임란 때 일본군 침략때도 그러하였습니다. 여인의 몸으로 일본 적장을 껴안고 진주 축석루 남강에 몸을 던진 논개님의 정신을 선양하는 여러분께 뜨거운 응원의 박수를 보냅니다.

2014년 09월 27일

원광대학교 명예교수 나 종 우

환 영 사



장수군의회 의장 오 재 만

의암 주논개 정신선양회 회원님과 내·외 귀빈 여러분!

논개님 정신을 기리기 위한 시낭송 경연에 참가한 여러분! 반갑습니다.

하늘은 높고 푸르고, 우리 장수의 빨간 사과가 맛있게 익은 아름다운 계절 가을날에 ‘논개 시낭송 대회’를 개최하게 됨을 진심으로 기쁘게 생각합니다.

주논개님의 호국충절의 정신을 계승 발전시키기 위해 노력하시고 오늘의 행사를 준비하여 주신, 양해도 회장님과 관계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오늘의 시낭송 대회를 위하여 바쁘신 와중에도 멀리서 찾아주신 여러분께 군민의 마음을 모아 감사하다는 말씀과 더불어 장수를 찾아 주심에 환영하는 마음을 전합니다.

존경하는 시낭송 참가자 여러분! 그리고 내·외 귀빈 여러분!

우리는 경제발전으로 풍요로워진 삶을 누리고 있지만 풍전등화의 나라를 위해 초개같이 목숨을 던지신 선열들의 넋을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특히 논개님은 여인의 몸으로 나라를 위해 목숨을 던진 의롭고 숭고한 분이십니다.

논개님 정신을 기리기 위한 제4회 논개 시낭송 대회를 통하여 논개님의 우국충절을 기리는 계기가 자라나는 어린이와 청소년 그리고 전 국민에게 그 정신을 본 받아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새겨지길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끝으로 참석하신 모든 분들의 가정에 항상 건강과 행복이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14년 09월 27일

장수군의회 의장 오 재 만

환 영 사



장수문협지부장 장 성 렬

시의 내면을 달구어 탐스런 시의 꽃망울을 터뜨리는 자리
잡다하고 음습한 열대성 저기압 쪼가리들을 모아 세를 규합하고, 불어난 힘으로 가난하고
약한 것들을 골라 짓밟고는 작은 고기압 덩어리 하나만 만나도 쉽게 제 뜻을 굽혀 방향을
바꾸어 해매다가, 한낱 보잘 것 없는 바람으로 흩어지는 태풍의 비열함이 어느 섬나라 사람
들의 행태를 보는 것 같아 영 찻찻했는데, 불사조라는 이름을 붙여준 주인에 대한 의리를
다하려는지 올해 마지막 태풍 풍왕은 홍콩에 문안을 드리고 우리나라에 상륙하여 애먼 비만
잔뜩 뿌리고 지나갔습니다.

엿그제 태풍을 보내고 난 가을 들녘은 그래도 누런 팽창색으로 너넉합니다. 장수의 골짜기
다 습진 곳에는 수줍은 물봉선이 발그레 얼굴을 붉히고, 햇살고운 작은 방죽 제방과 마을
어귀 벼랑에는 제철을 풍미하려는 익새들이 윤기 나는 줄기에 탐스런 꽃술을 준비하고 있습
니다. 지난 일요일에 다녀온 장안산의 대규모 익새 군락지는 이미 화려한 잔치의 음모가 모
두 끝나있었습니다.

장수의 천연병풍 백리 백두대간이 절정의 색을 준비하는 가을에 벌써 네 번째 의암 주논개
정신 선양을 위한 전국시낭송대회를 개최하게 된 것을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행사를 위
해 애써주신 사단법인 의암주논개정신선양회와 우리 장수문인협회 회원들께 감사드립니다.
또한 행사 전반을 주관해주신 한국문화교육개발원 관계자여러분께도 감사드립니다.

우리장수는 산이 높고 골이 깊어 연중 맑은 물이 골을 적시고, 이른 봄 노랑 생강나무 꽃으
로 시작해서 하물며 겨울의 눈꽃까지 이어지는 꽃의 향연과 그 사이를 스치는 한 줄기 바람
까지도 자연과 가깝지 않은 것들이 없습니다. 그러한 장수는 호남좌도 인맥의 형성지였고,
국가 위기에서 논개님처럼 분연히 떨쳐 일어나 구국의 횃불을 치켜든 의혼들이 서린 곳이기
도 합니다.

깊어가는 가을, 충절의 고장 장수에 전국의 내로라하는 시 낭송가들이 모였습니다. 겸허한
자세로 시인의 마음속에 들어가 시의 내면을 달구어내고 작품이 추구하는 본래의 의미를 발
견하여 탐스런 시의 꽃망울 터뜨려보시기 바랍니다. 그 꽃의 향기로 듣는 이들의 눈과 귀를
모아 재미를 주어 그들 자신도 모르게 감동의 늪으로 빠져들도록 유혹해 보시기 바랍니다.
모쪼록 낭송가 여러분들의 훌륭한 낭송과 그를 통한 시적 감흥이 천리 금강처럼 넘쳐흘러
지친 삶에서 거칠어진 정신을 어루만져 위로해주고 스스로도 위안을 받는 자리가 되기를 기
원합니다.

2014년 09월 27일

장수문협 지부장 장 성 렬

제4회 논개 詩 낭송대회 진행순서

구 분	행 사 명	진 행
제 1 부 개 회 식	개 회 사	사회자 이 혜지 군산 미술심리 치료 연구소장
	국민 의례	
	내.외빈 소개	
	심사위원 소개	
	대 회 사	사)의암논개 정신 선양회 회장 양 해도
	격 려 사	전라북도지사 송 하진
	축 사	장수 군수 최 용득
	축 사	문학박사,원광대명예교수 나 중우
	환 영 사	장수군의회 의장 오재만
	환 영 사	장수문협 지부장 장성렬
제 2 부	시낭송 대회 경과	한국 문화교육개발원장 박 경옥
	시낭송 심사기준	심사위원장
제 3 부	특별공연 우리가락과 현대무용	현대무용가 - 이지혜 대금 산조 - 김진형 판 소 리 - 명창 문영주 장단 오흥만
제 4 부	1.심사평및 시상식 2.폐회사	심사위원

《 논개 지점시 5편 》

01. 그 이름 논개 | 고두영
02. 축석루 | 노천명
03. 축석루차판상운 | 정약용
04. 논개 | 변영로
05. 논개의 애인이 되어서 그의 묘에 | 한용운

《 참가 시 》

- | | | | |
|-----------------------------|-------|----|-------|
| 01. 뜨거운 노래는 땅에 묻는다 유치환 | ----- | 남송 | 정영주 |
| 02. 9월이 오면 안도현 | ----- | 남송 | 가명현 |
| 03. 돌아보면 모두가 사랑이더라 장시하 | ----- | 남송 | 강미너 |
| 04. 힘쓸러 가는 것은 바람이다 박두진 | ----- | 남송 | 강정란 |
| 05. 청령포에 와서 이근배 | ----- | 남송 | 강평자 |
| 06. 성묘 고은 | ----- | 남송 | 권수복 |
| 07. 수선화에게 정호승 | ----- | 남송 | 기인순 |
| 08. 금강산은 길을 묻지 않는다 이근배 | ----- | 남송 | 김경숙 |
| 09. 생명의 서 유치환 | ----- | 남송 | 김경순 |
| 10. 힘쓸러 가는 것은 바람이다 박두진 | ----- | 남송 | 김경희 |
| 11. 주논개 김기진 | ----- | 남송 | 김기진 |
| 12. 아직 촛불을 켤 때가 아닙니다 신석정 | ----- | 남송 | 김나연 |
| 13. 나와 나타샤와 흰 당나귀 백석 | ----- | 남송 | 김미정 |
| 14. 바람 잘 날 없으라 박노해 | ----- | 남송 | 김민주 |
| 15. 매추나무 오상순 | ----- | 남송 | 김발렌티노 |
| 16. 별까지는 가야한다 이기철 | ----- | 남송 | 김성덕 |
| 17. 서울로 가는 전봉준 안도현 | ----- | 남송 | 김성주 |
| 18. 비천 박재천 | ----- | 남송 | 김순덕 |
| 19. 너 박두진 | ----- | 남송 | 김양원 |
| 20. 바다 서정주 | ----- | 남송 | 김영자 |
| 21. 불혹의 연가 문병란 | ----- | 남송 | 김원예 |
| 22. 검은신 정호승 | ----- | 남송 | 김은자 |
| 23. 성묘 고은 | ----- | 남송 | 김재신 |
| 24. 어머니의 아리랑 황금찬 | ----- | 남송 | 김정자 |
| 25. 논개 변영로 | ----- | 남송 | 김종순 |
| 26. 석굴암 관세음의 노래 서정주 | ----- | 남송 | 김지영 |
| 27. 늙은 어머니의 발톱을 깎아드리며 이승하 | ----- | 남송 | 김철 |
| 28. 어느 때나무의 고백 복효근 | ----- | 남송 | 김태근 |
| 29. 청산도 박두진 | ----- | 남송 | 김태정 |
| 30. 남신의주유동박씨봉방 백석 | ----- | 남송 | 김홍엽 |
| 31. 별헤는 밤 윤동주 | ----- | 남송 | 류혜원 |
| 32. 님의 침묵 한용운 | ----- | 남송 | 문정엽 |
| 33. 님에게 양성우 | ----- | 남송 | 문종원 |
| 34. 목마와 숙녀 박인환 | ----- | 남송 | 박건희 |
| 35. 여승 백석 | ----- | 남송 | 박경애 |
| 36. 꽃덤불 신석정 | ----- | 남송 | 박덕희 |
| 37. 여승 송수권 | ----- | 남송 | 박미경 |
| 38. 꽃덤불 신석정 | ----- | 남송 | 박정숙 |

39. 논개의 애인이 되어 그의 표에 한용운	남송	박창영
40. 청산도 박두진	남송	방영희
41. 차라리 한 그루 푸른 대로 신석정	남송	배동순
42. 그대 오는길 등불 밝히고 이해인	남송	서진숙
43. 자화상 서정주	남송	선명숙
44. 청산도 박두진	남송	송남숙
45. 님의 침묵 한용운	남송	송순복
46. 의자 김명인	남송	송은주
47. 행복 유치환	남송	송현정
48. 가난한 이름에게 김남조	남송	송혜진
49. 차라리 한 그루 푸른 대로 신석정	남송	신남춘
50. 나의 어머니 안영희	남송	안영희
51. 지금은 결코 꽃이 아니라도 좋아라 양성우	남송	안정희
52. 당신을 보았습니다 한용운	남송	양종열
53. 여승 송수권	남송	오양임
54. 누가 하늘을 보았다 하는가 신동엽	남송	우정연
55. 노래하는 사람 이기철	남송	유영준
56. 설악부 박두진	남송	유춘목
57. 사랑법 강은교	남송	육미경
58. 황혼 이육사	남송	은희란
59. 연어 정호승	남송	이경자
60. 언제 삶이 위기 아닌적 있었던가 이기철	남송	이삼남
61. 별까지는 가야한다 이기철	남송	이순애
62. 여승 백석	남송	이영실
63. 옛날의 그 집 박경리	남송	이원희
64. 청포도 이육사	남송	이인선
65. 휩쓸려 가는 것은 바람이다 박두진	남송	이재형
66. 새아리랑 문정희	남송	이정선
67. 축석루차판상운 정약용	남송	이종숙
68. 가시 정호승	남송	이주화
69. 어머니의 기억 신석정	남송	이진아
70. 어머니의 그릇 정일근	남송	이충관
71. 임진강에서 정호승	남송	이한규
72. 자화상 서정주	남송	이행숙
73. 바다 유치환	남송	임미란
74. 빠져린 꿈에서만 전봉건	남송	장운진
75. 승무 조지훈	남송	정기원
76. 청산도 박두진	남송	정명지
77. 푸른 하늘 아래 박두진	남송	정순자
78. 철조망에 걸린 편지 이길원	남송	정영기
79. 금강산은 길을 묻지 않는다 이근배	남송	정정채
80. 떡라의 길 이기철	남송	정환기
81. 독도만세 이근배	남송	조성식
82. 플리는 한강가에서 서정주	남송	조수향
83. 서울로 가는 전봉준 안도현	남송	조채성
84. 목마와 숙녀 박인환	남송	채광숙
85. 빼앗긴 들에도 봄은 오는가 이상화	남송	천미선

86. 바다 유치환	남승	최경애
87. 어떤 노을 박두진	남승	최기향
88. 바람 잘 날 없어라 박노해	남승	최순덕
89. 정동진 정호승	남승	최인수
90. 석문 조지훈	남승	최진자
91. 논개 변영로	남승	한병호
92. 뉘 박경리	남승	한옥례
93. 출발을 위한 날개 황금찬	남승	홍성란

논개 지정시

5 편

그 이름 논개

고두영

죽음에서 태어난 그 이름이여!

흔적 없이 소리 없이 임 가신 긴 여울목
고향집 부모 생애 그 모두를
슬픈 물결에 묻어 두고
수모와 모멸과 천시를 넘나들던
서러운 이름이여!

햇빛에 떠오르면 正史가 되고
달빛에 잠기면 野史가 되거늘
햇빛 달빛도 비켜 서버린
외로운 이름이여!

이젠
꽃빛 불빛으로
민중의 가슴 속 化石으로 새겨진
의랑루(義娘樓)에 불사조(不死鳥)로 살아난
구원(久遠)의 女神
거룩한 이름이여!
그 이름이여!

축석루

노천명

논개 치마에 불이 붙어
논개 치맛자락에 불이 붙어

논개는 남강 비탈 위에 서서
火神처럼 무서웠더란다

「우썩고 오매야! 축석루가 탄다, 축석루가」
마지막 지붕이 무너질 제는
기왓장 내려앉는 소리
온 진주가 진동을 했더란다

기왓장만 내려앉은 게 아니요
고을 사람들의 넋이 내려앉았기에
「飛鳳山 西將台」가 몸부림을 치더란다

조용히 살아가던 조그마한 마을에
이 어쩐 참혹한 재앙이었나뇨

밀어붙인 흰한 별관은
일찍이 우리의 낮익은 상점들이 있는 곳

할매 때부터 정이 든 우리들의 집이 서 있던 자리
문둥이가 우는 밤
진주사 더 쉽게 통곡하는 것을
진주사 더 쉽게 두견모양 목메이는 것을

촉석루차판상운

다산 정약용

오랑캐의 바다를 동으로 바라보며
술한 세월 흘러,
붉은 누각 우뚝이
산과 언덕을 베고 있네.
그 옛날 꽃다운 물위론 가인의 춤추는 모습 비추었고,
단청 매긴 기둥엔
길이 장사가 남아있네

전장터로 봄바람 불어
초목을 휘어 감고
황성에 밤비 내려
안개 낀 물살에 부딪히네.
지금도 영롱한 영혼이
남아 있는 듯
삼경에 촛불 밝히고
강신제를 올리네.

거룩한 분노는
종교보다도 깊고 불붙는
정열은
사랑보다도 강하다
아! 강낭콩 꽃보다도 더 푸른
그 물결 위에
양귀비꽃보다도 더 붉은
그 마음 흘러라.

아리따운 그 아미(蛾眉)
높게 흔들리우며
그 석류 속 같은 입술
'죽음'을 입 맞추었네!
아! 강낭콩 꽃보다도 더 푸른
그 물결 위에
양귀비꽃보다도 더 붉은
그 마음 흘러라.

흐르는 강물은
길이길이 푸르리니
그대의 꽃다운 혼
어이 아니 붉으랴
아! 강낭콩 꽃보다도 더 푸른

그 물결 위에
양귀비꽃보다도 더 붉은
그 마음 흘러라.

논개(論介)의 애인이 되어서 그의 묘(廟)에

한용운

날과 밤으로 흐르고 흐르는 남강(南江)은 가지 않습니다.

바람과 비에 우두커니 섰는 축석루는 살 같은 광음(光陰)을 따라서 달음질칩니다.

논개여, 나에게 울음과 웃음을 동시에 주는 사랑하는 논개여.

그대는 조선의 무덤 가운데 피었던 좋은 꽃의 하나이다. 그래서 그 향기는 썩지 않는다.

나는 시인으로 그대의 애인이 되었노라.

그대는 어디 있느냐. 죽지 않은 그대가 이 세상에는 없구나.

나는 황금의 칼에 베어진 꽃과 같이 향기롭고 애처로운 그대의 당년(當年)을 회상한다.

술 향기에 목땀한 고요한 노래는 옥(獄)에 묻힌 썩은 칼을 울렸다.

춤추는 소매를 안고 도는 무서운 찬바람은 귀신 나라의 꽃수풀을 거쳐서 떨어지는 해를 얼렸다.

가냘픈 그대의 마음은 비록 침착하였지만 떨리는 것보다도 더욱 무서웠다.

아름답고 무독(無毒)한 그대의 눈은 비록 웃었지만 우는 것보다도 더욱 슬펐다.

붉은 듯 하다가 푸르고 푸른 듯 하다가 희어지며 가늘게 떨리는 그대의 입술은 웃음의 조운(朝雲)이나 울음의 모우(暮雨)이나 새벽달의 비밀이나 이슬 꽃의 상징이냐.

빼비 같은 그대의 손에 꺾이우지 못한 낙화대의 남은 꽃은 부끄럼에 취하여 얼굴이 붉었다.

옥 같은 그대의 발꿈치에 밟히운 강 언덕의 묵은 이끼는 교궁(驕矜)에 넘쳐서 푸른 사룡(籠)으로 자기의 제명(題名)을 가리었다.

아아, 나는 그대도 없는 빈 무덤 같은 집을 그대의 집이라고 부릅니다.

만일 이름뿐이나마 그대의 집도 없으면 그대의 이름을 불러 볼 기회가 없는 까닭입니다.

나는 꽃을 사랑합니다마는 그대의 집에 피어 있는 꽃을 꺾을 수는 없습니다.

그대의 집에 피어 있는 꽃을 꺾으려면 나의 창자가 먼저 꺾어지는 까닭입니다.

나는 꽃을 사랑합니다마는 그대의 집에 꽃을 심을 수는 없습니다.

그대의 집에 꽃을 심으려면 나의 가슴에 가시가 먼저 심어지는 까닭입니다.

용서하여요 논개여, 금석(金石) 같은 굳은 언약을 저버린 것은 그대가 아니요 나입니다.

용서하여요 논개여, 쓸쓸하고 호젓한 잠자리에 외로이 누워서 끼친 한(恨)에 울고 있는 것은 내가 아니요 그대입니다.

나의 가슴에 '사랑'의 글자를 황금으로 새겨서 그대의 사당에 기념비를 세운들 그대에게 무슨 위로가 되오리까.

나의 노래에 '눈물'의 곡조를 낙인으로 찍어서 그대의 사당에 제종(祭鐘)을 울린대도 나에게 무슨 속죄가 되오리까.

나는 다만 그대의 유언대로 그대에게 다하지 못한 사랑을 영원히 다른 여자에게 주지 아니할 뿐입니다. 그것은 그대의 얼굴과 같이 잊을 수가 없는 맹세입니다.

용서하여요 논개여, 그대가 용서하면 나의 죄는 신에게 참회를 아니한 대도 사라지겠습니다.

천추(千秋)에 죽지 않는 논개여,

하루도 살 수 없는 논개여.

그대를 사랑하는 나의 마음이 얼마나 즐거우며 얼마나 슬프겠는가.

나는 웃음이 겨워서 눈물이 되고 눈물이 겨워서 웃음이 됩니다.

용서하여요 사랑하는 오오 논개여.

참가자 낭송시

93편

뜨거운 노래는 땅에 묻는다

시 : 유 치 환
낭송 : 정 영 주

고독은 욱되지 않는다.
견디는 이의 값진 영광
겨울의 숲으로 오니
그렇게 요조턴 빛깔도
설레이던 몸짓들도
깡그리 거두어간 기술사의 모자

양상한 공허만이
먼 한천 끝까지 잇닿아 있어
차라리
마음 고독한 자의
거닐기에 좋아라.

진실로 참되고 옳음이
죽어지고 숨어야 하는
이 계절에는
나의 뜨거운 노래는
여기 언땅에
깊이 묻으리.

아아 나의 이름은 나의 노래
목숨보다 귀하고 높은 것
마침내 비굴한 목숨은
눈을 애이고 땅바닥 옥에
무쇠연자를 돌릴지라도
나의 노래는
비도를 치레하기에
앗기지는 않으리.

들어보라.
저 거짓의 거리에서
물결쳐오는
못 구호와 빈 찬양의 헛한 울림을
모두가 영혼을 팔아 예복을 입고
소리 맞춰 목청 뿔을지라도
여기 진실은 고독히
뜨거운 노래를 땅에 묻는다.

9월이 오면

시 : 안 도 현
낭송 : 가 명 현

그대
9월이 오면
9월의 강가에 나가강물이 여물어 가는 소리를 듣는지요

뒤따르는 강물이
앞서가는 강물에게
가만히 등을 토닥이며 밀어주면
앞서가는 강물이 알았다는 듯
한번 더 몸을 뒤척이며
물결로 출렁
걸음을 옮기는 것을

그때 강둑 위로
지아비가 끌고 지어미가 미는 손수레가
저무는 인간의 마음을 향해
가는 것을

그대
9월의 강가에서 생각하는지요
강물이 저희끼리만
속삭이며 바다로 가는 것이 아니라
젖은 손이 닿는 곳마다
꿀고루 숨결을 나누어 주는 것을
그리하여 들꽃들이 피어나
가을이 아름다워지고
우리 사랑도
강물처럼 익어가는 것을

그대
사랑이란
어찌 우리 둘만의 사랑이겠는지요
그대가 바라보는 강물이
9월 들판을 금빛으로 만들고 가듯이
사람이 사는 마을에서
사람과 더불어 몸을 부비며
우리도
모르는 남에게 남겨줄
그 무엇이 되어야 하는 것을
9월이 오면
9월의 강가에 나가
우리가 따뜻한 피로 흐르는
강물이 되어
세상을 적셔야 하는 것을

돌아보면 모두가 사랑이더라

시 : 장 시 하
낭송 : 강 미 녀

추색의 주조음처럼 가슴 스며드는 모두가 사랑이더라
봄날 명을 터트리며 목련 꽃처럼 모두가 사랑이더라
여름 밤 후두둑 떨어지는 별뿔뿔처럼 모두가 사랑이더라
겨울날 곱게 가슴에 쌓이는 눈꽃처럼 모두가 사랑이더라

가도가도 세상은 눈부시도록 아름답기만 하더라
가도가도 세상은 눈물겹도록 사랑스럽기만 하더라

돌아보면 모두가 사랑이더라
돌아보면 모두가 그리움이더라

나를 미워하던 사람도 세월 지나니 사랑으로 남더라
이제 오해의 돌팔매도 사랑으로 맞을 수가 있더라

이 아름다운 세상에 살수 있는 것이 행복하기만 하더라
삶의 길을 걸다가 만나는 모든 것들이 사랑스럽더라
사랑의 길에서 만나는 모든 것들이 사랑스럽기만 하더라

지난날 돌아보니 모두가 내 잘못이더라
지난날 돌아보니 모두가 내 욕심이더라
지난날 돌아보니 모두가 내 허물 뿐이더라

내가 진실로 낮아지고
내가 내 욕심을 온전히 버리니
세상에 사랑 못할게, 용서 못할게 아무것도 없더라

가도 가도 세상은 눈부시도록 아름답기만 하더라
가도 가도 세상은 눈물 겹도록 사랑스럽기만 하더라

휩쓸려가는 것은 바람이다.

시 : 박 두 진
낭송 : 강 정 란

휩쓸려가는 것은 바람이다.
보고 싶은. 보고 싶은 나라의 사람의 초록빛 이름이다.
빈 들의 작은 꽃. 꽃을 보고 앓아있는 사람의 가난한 마음
다시는 생각하지 않으려던 사람의 초록빛 목소리
다시는 생각하지 않으려던 사람의 어질디어진 눈길이다.
휩쓸려 가는 것은 바람이다.
채찍에 구두발에 몸둥이와 총칼 그 비밀한 그물에
쫓기이는
쓸쓸한 황토벌 침침한 부둣가 창백한 문명의 거리
아무에게도 말할 곳 없는
약하디 약한 사람들의 공포의 심장 굶주린 창자
낮에도 으르렁거리는
강한 자 횡포한 자 무법한 자들의 나라의
맹수들의 목덜미
때무더기의 내일의 허물어져 가는 자들의 뼈다귀
휩쓸려가는 것은 바람이다.
저 바다에서 아침에서 초록의 별판에서 솟아나는
눈이 부신 찬란한 새로운 나라 사람들의 옛된 소리
소년들의 깃발을 보고 싶은 나라 사람들의 합창이다.
아 어제의 것 사라져가야 할 것 들의 죽음
죽은 자는 진실로 죽은 자들이 장사하는
빛이 있는 빛의 나라 빛의 대열의
휩쓸려가는 것은 바람.
휩쓸려가는 것은 바람이다.

청령포에 와서

시 : 이 근 배
낭송 : 강 평 자

물이 우는 구나
겹겹의 일월을 퍼내도
마르지 않는 슬픔이 있어 구나
흰옷 입은 어린 상왕
새 되어 토해내던
피묻은 가락 떨며
온 몸으로 젖어 우는 구나
뼈마디 마디 꺾으며
쓰러지며 흘러도 다시
제 자리로 돌아오는
물이 우는 구나

낯선 겨울이 지나가고
봄풀이 돋는 청령포
늙은 관음은 팔을 늘려
제궁의 새를 기다린다.
막아도 열리는 귀
감아도 보이는 눈
그러나 입은 열리지 않는다.
왕조에 검은 화살을 받고
이 외딴 숲에 쫓겨와
가슴찔던 원통한 새의
못다한 말은 다 쏟을 수가 없다

구름으로 떠 돌다가
눈비 되어 내렸는가
초립으로 하늘을 가린
술한 충절들이 엮드려
이끼 낀 금표를 쓸고 있다.
귀머거리 하늘을 떠받치고 선
돌탑에 굳은 촉루
춘삼월이 와도
자규는 날아오지 않는다.
자규의 울음을 들을 줄 아는
제왕은 돌아오지 않는다.

성묘

시 : 고 은
낭송 : 권 수 복

아버지, 아직 남북통일이 되지 않았습니다.
일제 시대 소금 장수로
이 땅을 떠도신 아버지,
아무리 아버지의 두만강 압록강을 생각해도
눈 안에 선지가 생길 따름입니다.
아버지의 젊은 시절
두만강의 회령 수양버들을 보셨지요,
국경 수비대의 칼날에 비친
저문 압록강의 붉은 물빛을 보셨지요
그리고 아버지는
모든 남북의 마을을 다니시면서
하얀 소금을 한 되씩 팔았습니다.
때로는 서도 노래도 흥얼거리고
꽃 피는 남쪽에서는 남쪽이라
밀양 아리랑도 흥얼거리셨지요.
한마디로, 세월은 흘러서 멈추지 않는 물인지라
젊은 아버지의 추억은 이 땅에 남지도 않고
아버지는 하얀 소금이 떨어져서 돌아가셨습니다.
아버지, 남북통일이 되면 또다시 이 땅에 태어나서
남북을 떠도는 청청한 소금 장수가 되십시오.
“소금이여”, “소금이여”
그 소리, 떨어져 가는 그 소리를 듣게 하십시오.

수선화에게

시 : 정 호 승
낭송 : 기 인 순

울지 마라
외로우니까 사람이다
살아간다는 것은 외로움을 견디는 일이다
공연히 오지 않는 전화를 기다리지 마라
눈이 오면 눈길을 걸어가고
비가 오면 빗길을 걸어가라
갈대숲에서 가슴검은도요새도 너를 보고 있다
가끔은 하느님도 외로워서 눈물을 흘리신다
새들이 나뭇가지에 앉아 있는 것도 외로움 때문이고
네가 물가에 앉아 있는 것도 외로움 때문이다
산 그림자도 외로워서 하루에 한 번씩 마을로 내려온다
종소리도 외로워서 울려 퍼진다

금강산은 길을 묻지 않는다.

시 : 이 근 배
시인 : 김 경 숙

새들은 저희들끼리 하늘에 길을 만들고,
물고기는 너른 바다에서도 길을 잃지 않는데
사람들은 길을 두고 길 아닌 길을 가기도 하고
길이 있어도 가지 못하는 길이 있다.
산도 길이고 물도 길인데
산과 산, 물과 물이 서로 돌아누워
내 나라의 금강산을 가는데
반세기 넘게 기다리던 사람들
이제 봄, 여름, 가을, 겨울
앞 다투어 길을 나서는 구나
참 이름도 개골산, 봉래산, 풍악산
철따라 다른 우리 금강산
보라, 저 비로봉이 거느린 일만 이천 뒷부리
우주 만물의 형상이 여기서 빛고
여기서 태어났구나.
깍아지른 바위는 살아서 뛰며 놀고
흐르는 물은 은구슬 옥구슬이구나.
소나무, 잣나무는 왜 이리 늦었느냐 반기고
구룡폭포 천둥소리 닫힌 세월을 깨운다.
그렇구나.
금강산이 일러주는 길은 하나
한 핏줄 칭칭 동여매는 이 길 두고
우리는 너무도 먼 길을 돌아왔구나.
분단도 가고 철조망도 가고
형과 아우 겨누던 총부리도 가고
손에 손에 삼과 팽이 들고
평화의 씨앗, 자유의 씨앗 뿌리고 가꾸며
오순도순 잘 사는 길을 찾아왔구나.
한 식구 한술밥 끓이며 살자는데
우리가 사는 길 여기 있는데
어디서 왔느냐고 어디로 가느냐고
이제 금강산은 길을 묻지 않는다.

생명의 서

시 : 유 치 환
낭송 : 김 경 순

나의 지식이 독한 회의를 구하지 못하고
내 또한 삶의 애증을 다 짐지지 못하여
병든 나무처럼 생명이 부대길 때
저 떠나면 아라비아의 사막으로 나는 가자

거기는 한번 뜬 백일(白日)이 불사신같이 작열하고
일체가 모래 속에 사멸한 영겁의 허적(虛寂)에
오직 알라의 신만이
밤마다 고민하고 방황하는 열사(熱沙)의 끝

그 열렬한 고독 가운데
옷자락을 나부끼고 호올로 서면
운명처럼 만드시 `나'와 대면케 될지니
하여 `나'란 나의 생명이란
그 원시의 본연한 자태를 다시 배우지 못하거든
차라리 나는 어느 사구에 회한(悔恨) 없는 백골을 쪼이리라

휩쓸려가는 것은 바람이다.

시 : 박 두 진
낭송 : 김 경 희

휩쓸려가는 것은 바람이다.
보고 싶은. 보고 싶은 나라의 사람의 초록빛 이름이다.
빈 들의 작은 꽃. 꽃을 보고 앉아있는 사람의 가난한 마음
다시는 생각하지 않으려던 사람의 초록빛 목소리
다시는 생각하지 않으려던 사람의 어질디어진 눈길이다.
휩쓸려 가는 것은 바람이다.
채찍에 구두발에 몸둥이와 총칼 그 비밀한 그물에
쫓기이는
쓸쓸한 황톳벌 침침한 부둣가 창백한 문명의 거리
아무에게도 말할 곳 없는
약하디 약한 사람들의 공포의 심장 굶주린 창자
낮에도 으르렁거리는
강한 자 횡포한 자 무법한 자들의 나라의
맹수들의 목덜미
떼무더기의 내일의 허물어져 가는 자들의 뼈다귀
휩쓸려가는 것은 바람이다.
저 바다에서 아침에서 초록의 별판에서 솟아나는
눈이 부신 찬란한 새로운 나라 사람들의 옛된 소리
소년들의 깃발을 보고 싶은 나라 사람들의 합창이다.
아 어제의 것 사라져가야 할 것 들의 죽음
죽은 자는 진실로 죽은 자들이 장사하는
빛이 있는 빛의 나라 빛의 대열의
휩쓸려가는 것은 바람.
휩쓸려가는 것은 바람이다.

주논개(朱論介)

시 : 백당 김 기 진

시인 : 김 기 진

죽음을 누가 두렵다 않으랴
누가 죽음이 두렵지 않으랴
설편 꽃 꽃
열아홉 살 인데
죽음보다 강한 한 깊은 분노

기생 첩지로 분장하여
은가락지 옥가락지 열 손가락 장식하고
진홍빛 입술연지로
시퍼렇게 솟구치는 의분을 감추고
스멀스멀 더듬어오는 구렁이 같은 감촉을
간드러지는 웃음으로 토악질을 참으며
의연히 의암에 올랐다

칼잡이 왜장을 맨손으로 남강에 처박아
고기밥으로 던져주었다
비도 주룩 주룩 밤을 새운 7월 7일 그날

누가 감히 애인이라 욕되게 하는가
누가 감히 천기(賤妓)라 모멸 하는가
의열(義烈) 열사(烈士) 주논개를

혼령이 되어서도
게야무라로 꾸스께(毛谷村文助)를
매일 매일 죽여
자르고 찢어내어 찜을 찌서
지아비 제단에 상식(上食)으로 바치었다

살아서 육신을 죽어서는 영정을 바쳐
하늘보다 푸른 순(殉,純) 빛
천년 비취 보다 찬연하고
지리산 주령(主嶺)보다 우뚝하구나

의암은 남강에 무량하고
주논개의 의혈 겨레의 얼로
천추만대 길뵈게 흐르리라

아직 촛불을 켜 때가 아닙니다

시 : 신 석 정
낭송 : 김 나 연

저 재를 넘어가는 저녁 해의 옅은 광선들이 섭섭해 합니다.
어머니, 아직 촛불을 켜지 말으세요.
그리고 나의 작은 명상의 새 새끼들이
지금도 저 푸른 하늘에서 날고 있지 않습니까?

이윽고 하늘이 능금처럼 붉어질 때
그 새끼들은 어둠과 함께 돌아온다 합니다.

언덕에서는 우리의 어린 양들이 낡은 녹색 침대에 누워서
남은 햇볕을 즐기느라고 돌아오지 않고
조용한 호수 위에는 인제야 저녁 안개가 자욱이 내려오기
시작 하였습니다.

그러나 어머니, 아직 촛불을 켜 때가 아닙니다.
늙은 산의 고요히 명상하는 얼굴이 멀어가지 않고
머언 숲에서는 밤이 끌고 오는 그 검은 치맛자락이
밭길에 스치는 발자국 소리도 들려오지 않습니다.

멀리 있는 기인 독을 거쳐서 들려오던 물결 소리도
차츰차츰 멀어 갑니다.
그것은 늦은 가을부터 우리 전원을 방문하는 까마귀들이
바람을 데리고 멀리 가 버린 까닭이겠습니다.
시방 어머니의 등에서는 어머니의 콧노래 섞인
자장가를 듣고 싶어 하는 애기의 잠뎀이 있습니다.

어머니, 아직 촛불을 켜지 말으세요.
인제야 저 숲 너머 하늘에 작은 별이 하나 나오지 않았습니까?

나와 나타샤와 흰 당나귀

시 : 백 석

낭송 : 김 미 정

가난한 내가
아름다운 나타샤를 사랑해서
오늘밤은 푹푹 눈이 나린다

나타샤를 사랑은 하고
눈은 푹푹 날리고
나는 혼자 쓸쓸히 앉아 소주燒酒를 마신다
소주燒酒를 마시며 생각한다
나타샤와 나는
눈이 푹푹 쌓이는 밤 흰 당나귀 타고
산골로 가자 출출이 우는 깊은 산골로 가 마가리에 살자

눈은 푹푹 나리고
나는 나타샤를 생각하고
나타샤가 아니올 리 없다
언제 벌써 내 속에 고조곤히 와 이야기한다
산골로 가는 것은 세상한테 지는 것이 아니다
세상 같은 건 더러워 버리는 것이다

눈은 푹푹 나리고
아름다운 나타샤는 나를 사랑하고
어데서 흰 당나귀도 오늘밤이 좋아서 응양응양 울을 것이다

바람 잘 날 없어라

시 : 박 노 해
낭송 : 김 민 주

바람 잘 날 없어라
내 생의 길에
온 동치가 흔들리고
뿌리마디 사무치고

아 언제 그치나
한 고비 넘으면 또 한 고비
너무 힘들다
너무 아프다
이렇게 살아야 하나
이렇게 싸워야 하나

바람 잘 날 없어라
울지 마, 살아 있다는 것이다
오늘 이 아픔 속에 외로움 속에
푸르게 내가 살아 있다는 것이다

대추나무

시 : 오 상 순
낭송 : 김발렌티노(김응학)

적멸(寂滅)인 양
태고정적(太古靜寂)이 깃들인
원(院) 앞뜰 마당 한복판에
창공을 꿰뚫고 우뚝 솟아 있는
무성한 대추나무 한 그루

번창한 가지마다
자연의 염주인 양
주렁주렁 맺힌
푸른 대추 알갱이들.....

날마다 깊어만 가는
가을바람 속에
핏빛처럼 붉게 물들어 익어가거니.....

대추알들은 자연의 정액의 결정
가을을 빛어내는 혈액의 핵

못 결실을 익히고야 말리라는 듯이
승엄하게 쪼이는 한없이 그윽하고
거룩하고 다사롭고 따가운 가을 햇살의 빛나는 정열과
속 모르게 신비한 밤의 정기와
드높은 가을밤 하늘에

진주알인 양 총총드리 들어박혀
하늘을 잡아 흔들면
우수수 구울러 쏟아질 듯
수없이 반짝이는 별들과의
활살자재(活殺自在)하고 조화무궁(造化無窮)한
가을바람의 애무가 죽도록 그리웠어라

그러기에
사랑에 주리고 목말라
차츰 영글어가는 귀뚜라미 소리 영롱하고
달빛 머금은 이슬방울 찬란한 가운데 가을바람과 더불어
무슨 영겁(永劫)의 밀약(密約)이나 있는 듯
그 무슨 껏속이나 한 듯이
각각으로 깊어가는 가을바람 속에
붉게 물들어 익어가거니.....

이 대추를 열매 맺으려
가을은 이 땅에 찾아오고
이 열매는 가을을 위하여
그 빛이 짙어가는 것이어니.....

그야말로 꿋꿋으로 대추알들이
새빨강게 무르익거들랑
그 육신과 아울러
그 정신! 그 정념!

저 대추나무만이 아는
대자연의 그 속 모를
정(精)과 색(色)과
정(淨)과 동(動)과
진(眞)과 미(美)
비(秘)와 성(聖)을.....
여지없이
내 만끽하리 만끽하리.

별까지는 가야 한다

시 : 이 기 철
낭송 : 김 성 덕

우리 삶이 먼 여정일지라도
건고 걸어 마침내 하늘까지는 가야 한다
닿은 신발 끝에 노래를 달고
건고 걸어 마침내 별까지는 가야 한다

우리가 깃들인 마을엔 잎새들 푸르고
꽃은 칭찬하지 않아도 향기로 핀다
숲과 나무에 깃든 삶들은 아무리 노래해도
목쭈지 않는다
사람의 이름이 가슴으로 들어와 마침내
꽃이 되는 걸 아는 데
나는 쉼 해를 보냈다
미움도 보듬으면 노래가 되는 걸 아는 데
나는 반생을 보냈다

나는 너무 오래 햇별을 만졌다
이제 햇별을 뒤로 하고 어둠 속으로 걸어가
별을 만져야 한다
나뭇잎이 짜 늘인 그늘이 넓어
마침내 그것이 천국이 되는 것을
나는 이제 배워야 한다

먼지의 세간들이 일어서는 골목을 지나
성사(聖事)가 치러지는 교회를 지나
빛이 쌓이는 사원을 지나
마침내 어둠을 밝히는 별까지는
나는 걸어서 걸어서 가야 한다

서울로 가는 전봉준

시 : 안 도 현
낭송 : 김 성 주

눈 내리는 만경(萬頃) 들 건너가네
해진 짚신에 상투 하나 떠가네
가는 길 그리운 이 아무도 없네
녹두꽃 자지러지게 피면 돌아올거나
울며 울지 않으며 가는
우리 봉준이
풀잎들이 북향하여 일제히 성긴 머리를 푸네

그 누가 알기나 하리
처음에는 우리 모두 이름 없는 들꽃이었더니
들꽃 중에서도 저 하늘 보기 두려워
그들 깊은 땅속으로 젖은 발 내리고 싶어 하던
잔뿌리였더니

그대 떠나기 전에 우리는
목 선 그대의 칼집도 찾아 주지 못하고
조선 호랑이처럼 모여 울어 주지도 못하였네
그보다도 더운 국밥 한 그릇 말아 주지 못하였네
못다 한 그 사랑 원망이라도 하듯
속절없이 눈발은 그치지 않고
한 자 세 치 눈 쌓이는 소리까지 들려오나니

그 누가 알기나 하리
겨울이라 뽕뽕 숨어 우는 우리나라 풀뿌리들이
입춘 경칩 지나 수군거리며 봄바람 찾아오면
수천 개의 푸른 기상나팔을 불어 제낄 것을
지금은 손발 묶인 저 얼음장 강줄기가
옥빛 대님을 홀연 풀어 헤치고
서해로 출렁거리며 쳐들어갈 것을

우리 성상(聖上) 계옵신 곳 가까이 가서
녹두알 같은 눈물 흘리며 한 목숨 타오르겠네
봉준이 이 사람아

그대 갈 때 누군가 찍은 한 장 사진 속에서
기억하라고 타는 눈빛으로 건네던 말
오늘 나는 알겠네

들꽃들아
그날이 오면 닭 울 때
흰 무명 띠 머리에 두르고 동진강 어귀에 모여
척왜척화 척왜척화 물결 소리에
귀를 기울이라

비천(飛天)

시 : 박 제 천
낭송 : 김 순 덕

나는 종이였다.

하늘이 내게 물을 때, 바람이 내게 물을 때
사람들이 그의 괴로움을 물을 때 그의 괴로움이 되었고
그의 슬픔을 물을 때 그의 슬픔이 되었으며
그의 기쁨을 물을 때 그의 기쁨이 되었다.

처음에 나는 바다였다. 바다를 떠다니는 물결 이었다
물결 속에 떠도는 물방울이었다. 아지랑이가 되어
바다 꽃이 되어 하늘로 올라가고 싶은 바람이었다.
처음에 나는 하늘이었다. 하늘을 흘러 다니는 구름이었다.
구름 속에 떠도는 물방울이었다. 비가 되어 눈이 되어
땅으로 내려가고 싶은 몸부림이었다.

처음에 그 처음에 나는 어둠이었다. 바다도 되고 하늘도 되는
어둠이었다. 나는 사람들의 마음속에 갇들어 있는
그리움이며 미움이며 말쑤이며 소리였다

참으로 오랫동안 나는 떠돌아 다녔다 . 내 몸 속의 피와
눈물을 말렸고, 뼈는 뼈대로 살은 살대로 추려 산과 강의
구석구석에 묻어 두었고 불의 녀 물의 흐름으로만 남아
땅 속에 묻힌 하늘의 소리, 하늘로 올라간 땅 속의 소리를
들으려 하였다,

떠돌음이어, 그러나 나를 하늘도 바다도 어둠도 그 무엇도
될 수 없게 하는 바람이어, 하늘과 땅 사이에 나를 묶어두는
이 기묘한 녀의 힘이어, 하늘과 땅 사이를 날게 하는
이 소리의 울림이어.

너

시 : 박 두 진
낭송 : 김 양 원

내 영혼의 별판에 쏟아지는 꽃비
그 속을 걸어가며
때로는 눈보라
때로는 달빛
때로는 폭우로 쏟아지는
혼자서 걸어가는 그 속에 외로움
혼자서의 외로움
먼 어릴 때를 그리는 언어의 순수도
침묵, 앞으로의 내일의
꿈의 날개도 무너져
희디하얀 내 손바닥도
정결한 심장의 고동도
맹수로 산맥을 치달리던 내 보행의 위력도
바람에 흩날리는 머리카락의 멋도
휘파람도
번쩍이는 이마의 여유
눈의 고요 -
바다를 듣는 귀의 의미도
정지될 때.
너여.
너는 그 따사한 나라
하늘의 꽃으로 내려오는 층계의
꽃의 사랑.
허물어진 것 잃어버린 것 정지된 것의
일체를 활기주는
순수하고 아름다울 수 있는 정수의 총화
그리한 집중과 승화의 하늘 내림
땅의 솟음. 너
나의 영혼의 별판에 쏟아져야 할
금빛 아침의 나라의 황홀한 빛살
살갑고 따뜻한 영혼과 체온의 그 전부
나의 유일과 모두로
영원으로 다가와 포용해야 할
너여.

바다

시 : 서 정 주

낭송 : 김 영 자

귀기우려도 있는것은 역시바다와 나뿐.
밀려왔다 밀려가는 무수한 물결우에 무수한 밤이 往來하나
길은 恒時 어디나 있고, 길은 결국 아무데도 없다.
아-반딧불만한 등불 하나도 없이
울음에 젖은 얼굴을 온전한 어둠 속에 숨기어가지고..... 너는,
無言의 海心에 홀로 타오르는
한낫 꽃같은 心臟으로 沈沒하라.
아- 스스로히 푸르른 情熱에 넘쳐
둥그런 하늘을 이고 웅얼거리는 바다,
바다의깊이우에
네 구멍 뚫린 피리를 불고..... 청년아.
애비를 잊어버려,
에미를 잊어버려,
형제와 親戚과 동모를 잊어버려,
마지막 네 계집을 잊어버려,
아라스카로 가라, 아니 아라비아로 가라,
아니 아메리카로 가라, 아니 아프리카로
가라, 아니 沈沒하라. 沈沒하라. 沈沒하라!
오- 어지러운 心臟의 무게우에 풀뉘처럼 훗날리는 머리칼을 달고
이리도 괴로운 나는 어찌 끝끝내 바다에 그윽해야 하는가.
눈뜨라. 사랑하는 눈을뜨라..... 청년아.
산 바다의 어느 東西南北으로도
밤과 피에 젖은 國土가있다.
아라스카로 가라!
아라비아로 가라!
아메리카로 가라!
아프리카로 가라!

불혹의 연가

시 : 문 병 란
낭송 : 김 원 예

어머니, 이제 어디만큼 흐르고 있습니까
목마른 당신의 가슴을 보듬고
어느 세월의 언덕에서
몸부림치며 흘러온 역정
눈 감으면 두팔 안으로 오늘도
햇빛 노을은 무너집니다

삼남매 칠남매 마디마디 열리는 조롱박이
오늘은 모두 다 함박이 되었을까
모르게 감추어 놓은 눈물이 이다지도
윙윙히 흐르는 강
이만치 앉아서 바라보며
나직한 대화를 나누고 싶습니다

보श्य
어머니 나주별 만큼이나 내려가서
삼백리 역정 다시 뒤돌아 보며
풍성한 언어로 가꾸던 어젯날
넉넉한 햇살 속에서
이마 묻고 울고싶은 지금은
고향으로 돌아가는 시간입니다

흐른다는 것은 사랑한다는 것
새끼 네 명을 키우며 중년에
접어든 불혹의 가을
오늘은 당신 곁에 와서 귀에 익은
노래를 듣고 있습니다

아직도 다하지 못한 남은 사연이 있어
출렁이며 출렁이며 흐르는 강
누군가 소리쳐 부르고 싶은
이 간절한 마음은 무엇입니까

목마른 정오의 언덕에 서서
내 가슴 가득히 채우고 싶은
무슨 커다란 슬픔이 있어
풀냄새 언덕에 서면
아직도 목매어 흐르는 강
나는 아득한 곳에서 회귀하는
내 청춘의 조각배를 봅니다

이렇게 항상 흐르게 하고 이렇게
간절히 손을 흔들게 하는
어느 정오의 긴 언덕에 서서
어머니 오늘은 꼭 한번
울고 싶은 슬픔이 있습니다
꼭 한번 쏟고 싶은 진한 눈물이 있습니다

검은신(神)

시 : 정 호 승
낭송 : 김 은 자

어머니
그대 슬픔이어서 더욱 그립습니다.
어머니
그대 눈물이어서 더욱 그립습니다.
그대 심장은 찢어져 잠들지 못해
하얀혼백(魂魄)을 풀어
오늘도 거리를 방황하고 있습니다.

어머니
그대 패배여서 더욱 자랑스럽습니다.
어머니
그대 분노여서 더욱 자랑스럽습니다.
이 참혹한 용서를 위한 분노를 보았는가
그대 붉은 피는 검은 신들을 낳고
이제 하얀 살갓을 풀어 붉은 노을빛으로 읊니다.

아, 딸들로 태어났다는 이유로 영문도 모른 채
끌려가고 찢어지고 버려져 이렇게 슬프다면
누가 딸들로 태어나리이까
온 몸으로 살아온 그대
온 몸으로 생각하는 그대
온 몸으로 침묵하는 그대
온 몸으로 분노하는 그대

어찌 사내들의 총칼과 변명이 신에게 용서 받으리
어찌 사내들의 폭력과 싸움이 평화와 안식을 기약하리
꿈꾸기도 전에 찢겨진 자궁을 열어
자! 보란 듯이, 자! 보란 듯이
그대 컴탈의 무리들에게 던져 주리다.
그대들이 어디서 나왔는지 똑똑히 보여 주리다.
그리고 불살라 평화의 거름으로 뿌리리라.

몸은 언제나 만신창이면서
마음은 절대로 주지 않았다는 은장도여
논개여 붉은 마음이어 푸른 강물이어
온 몸을 던졌던 우리의 여신이여
온 몸을 찢겼던 우리의 여신이여
풍요의 언덕을 피로 채운 우리의 검은 어머니
검은 마리아, 검은 관세음보살

성묘

시 : 김 재 신

낭송 : 고 은

아버지, 아직 남북 통일이 되지 않았습니다.
일제 시대 소금 장수로
이 땅을 떠도신 아버지.
아무리 아버지의 두만강 압록강을 생각해도
눈 안에 선지가 생길 따름입니다.
아버지의 젊은 시절
두만강의 회령 수양버들을 보셨지요.
국경 수비대의 칼날에 비친
저문 압록강의 붉은 물빛을 보셨지요.
그리고 아버지는
모든 남북의 마을을 다니시면서
하얀 소금을 한 되씩 팔았습니다.
때로는 서도(西道) 노래도 흥얼거리고
꽃 피는 남쪽에서는 남쪽이라
밀양 아리랑도 흥얼거리셨지요.
한마디로, 세월은 흘러서
멈추지 않는 물인지라
젊은 아버지의 추억은
이 땅에 남지도 않고
아버지는 하얀 소금이 떨어져서 돌아가셨습니다.
아버지, 남북 통일이 되면
또다시 이 땅에 태어나서
남북을 떠도는 청청한 소금 장수가 되십시오.
“소금이여”, “소금이여”
그 소리, 떨어져 가는 그 소리를 듣게 하십시오.

어머님의 아리랑

시 : 황 금 찬
낭송 : 김 정 자

함경북도 마천령, 용두골 집이 있었다.
집이라 해도 십 분의 4는 집을 닮고
그 남은 6은 토굴이었다

어머님은 봄 산에 올라
참꽃(진달래)을 한자루 따다 놓고
아침과 점심을 대신하여
왕기에 꽃을 담아 주었다

입술이 푸르도록 꽃을 먹어도
허기는 그대로 남아 있었다
이런 날에
어머님이 눈물로 부르던
조용한 아리랑

청천 하늘엔 별도 많고
우리네 살림엔 가난도 많지
아리랑, 아리랑 아라리요
아리랑 고개를 넘어 간다

산이 무너져 내리고 있었다
하늘은 울고
무산자 누구나 탄식 말라
부귀와 영화는 돌고 돈다네
박꽃이 젖고 있다 구겨지며
어머니의 유산, 먼 산 바라보며
눈물로 부르던
조용한 아리랑.

논개(論介)

시 : 변 영 로
낭송 : 김 종 순

거룩한 분노는
종교보다도 깊고
불붙는 정열(情熱)은
사랑보다도 강하다.
아, 강낭콩꽃보다도 더 푸른
그 물결 위에
양귀비꽃보다도 더 붉은
그 마음 흘러라.

아리따운 그 아미(娥眉)
높게 흔들리우며
그 석류(石榴) 속 같은 입술
죽음을 입 맞추었네.
아, 강낭콩꽃보다도 더 푸른
그 물결 위에
양귀비꽃보다도 더 붉은
그 마음 흘러라.

흐르는 강물은
길이길이 푸르리니
그대의 꽃다운 혼
어이 아니 붉으랴.
아, 강낭콩꽃보다도 더 푸른
그 물결 위에
양귀비꽃보다도 더 붉은
그 마음 흘러라.

석굴암 관세음의 노래

시 : 서 정 주

낭 송 : 김 지 영

그리움으로 여기 섰노라
호수(湖水)와 같은 그리움으로,

이 싸늘한 돌과 돌 사이
얼크러지는 칙닝쿨 밑에
푸른 숨스결은 내것이로다.

세월이 아조 나를 못 쓰는 티끌로서
허공에, 허공에, 돌리기까지는
부푸러오르는 가슴속에 파도와
이 사랑은 내것이로다 .

오고 가는 바람 속에 지새는 나달이여.
땅속에 파무친 찬란한 서라벌.
땅속에 파묻친 꽃같은 남녀들이여.

오- 생겨났으면, 생겨났으면,
나보단도 더 나를 사랑하는 이
천년을, 천년을, 사랑하는 이
새로 햇별에 생겨났으면

새로 햇별에 생겨나와서
어둠 속에 나르 가게 했으면,
사랑한다고..... 사랑한다고.....
이 한마디스 말 넘께 아뢰고, 나도,
인제는 바다에 도라갔으면!

허나 나는 여기 섰노라.
앉아 계시는 석가의 곁에
허리에 쫓그만 향냥을 차고
이 싸늘한 바위스 속에서
날이 날마다 드리쉬고 내쉬이는
푸른 숨스결은
아, 아직도 내것이로다.

늙은 어머니의 발톱을 깎아드리며

시 : 이 승 하
낭송 : 김 철

작은 발을 쥐고 발톱 깎아드린다
일흔다섯 해 전에 붙었던 된바람은
내 어머니의 첫 울음소리 기억하리라
이웃집에서도 들었다는 뜨거운 울음소리

이 발로 아장아장
걸음마를 한 적이 있었던 말인가
이 발로 폴짝폴짝
고무줄놀이를 한 적이 있었던 말인가
뼈마디를 덮은 살가죽
쫄글쫄글하기가 가뭇못자리 같다
굳은살이 덮인 발바닥
딱딱하기가 거북이 등 같다

발톱 깎을 힘이 없는
늙은 어머니의 발톱을 깎아드린다
가만히 계세요 어머니
잘못하면 다쳐요
어느 날부터 말을 잃어버린 어머니
고개를 끄덕이다 내 머리카락을 만진다
나 역시 말을 잃고 가만히 있으니
한쪽 팔로 내 머리를 감싸 안는다

맞닿은 창문이
온몸 흔들며 몸부림치는 날
어머니에게 안기어
일흔다섯 해 동안의 된바람 소리 듣는다.

어느 대나무의 고백

시 : 복 효 근
낭 송 : 김 태 근

늘 푸르다는 것 하나로
내게서 대쪽 같은 선비의 풍모를 읽고 가지만
내 몸 가득 칸칸이 들어찬 어둠속에
터질 듯 한 공허와 회의를 아는가

고백컨대
나는 참새 한 마리의 무게로도 휘청댄다
흰 눈 속에서도 하늘 찌르는 기개를 운운하지만
바람이라도 거세게 불라치면
허리뼈가 빼개지도록 휘다. 흔들린다

제 때에 이냥 베어져서
난세의 죽창이 되어 피 흘리거나
태평성대 향기로운 대피리가 되는
정수리 깨치고 서늘하게 울려 퍼지는 장군죽비

하다못해 세상의 종아리를 후려치는 회초리의 꿈마저,
꿈마저 꾸지 않는 것은 아니나
흉흉하게 들려오는 세상의 바람소리에
어둠속에서 먼저 떨었던 것이다

아아, 고백하건대
그놈의 꿈들 때문에 서글픈 나는
생의 맨 꼬트머리에나 있다고 하는 그 꽃을 위하여
시들지도 못하고 휘청, 흔들리며, 떨며, 다만
하늘 우러러 견디고 서 있는 것이다

청산도

시 : 박 두 진

낭송 : 김 태 정

산아, 우뚝 솟은 푸른 산아, 철 철 철 흐르듯 질푸른 산아.
술한 나무들, 무성히 무성히 우거진 산마루에, 금빛 기름진 햇살은 내려오고,
둥둥 산을 넘어, 흰구름 건넌 자리 씻기는 하늘.
사슴도 안 오고 바람도 안 불고, 넘엇골 골짜기서 울어오는 삐꾸기.

산아, 푸른 산아. 네 가슴 향기로운 풀밭에 엮드리면, 나는 가슴이 울어라.
흐르는 골짜기 스며드는 물소리에, 내사 줄 줄 줄 가슴이 울어라.
아득히 가버린 것 잊어버린 하늘과, 아른 아른 오지 않는 보고 싶은 하늘에,
어찌면 만나도 질 불이 고운 사람이, 난 혼자 그리워라.
가슴으로 그리워라.

티끌 부는 세상에도 벌레 같은 세상에도 눈 맑은, 가슴 맑은, 보고지운 나의 사람.
달밤이나 새벽녘, 홀로 서서 눈물어릴 불이 고운 나의 사람.
달 가고, 밤 가고, 눈물도 가고, 티어 올 밝은 하늘 빛난 아침 이르면,
향기로운 이슬밭 푸른 언덕을, 총 총 총 달려도 와줄 불이 고운 나의 사람.

푸른 산 한나절 구름은 가고, 골 넘어, 골 넘어, 삐꾸기는 우는데,
눈에 어려 흘러가는 물결 같은 사람 속, 아우성쳐 흘러가는 물결 같은 사람 속에,
난 그리노라. 너만 그리노라. 혼자서 철도 없이 난 너만 그리노라.

남신의주유동박씨봉방

시 : 백 석
낭송 : 김 홍 엽

어느 사이에 나는 아내도 없고, 또,
아내와 같이 살던 집도 없어지고,
그리고 살뜰한 부모며, 동생들과도 멀리 떨어져서,
그 어느 바람 세인 쓸쓸한 거리 끝에 헤매이었다.
바로 날도 저물어서,
바람은 더욱 세계 불고, 추위는 점점 더해 오는데,
나는 어느 목수네 집 현 샷을 깬,
한 방에 들어서 권을 붙이었다.
이리하여 나는 이 습내 나는 춥고, 누긋한 방에서,
낮이나 밤이나 나는 나 혼자도 너무 많은 것 같이 생각하며,
덜용배기에 북덕불이라도 담겨오면
이것을 안고 손을 쬐며 재 우에 뜻 없이 글자를 쓰기도 하며,
또 문 밖에 나가지도 않고 자리에 누워서,
머리에 손각지 베개를 하고 굴기도 하면서,
나는 내 슬픔이며 어리석음이며를 소처럼 연하여 썩김질하는 것이었다.
내 가슴이 딱 메어 올 적이며,
내 눈에 뜨거운 것이 핑 괴일 적이며,
또 내 스스로 화끈 낮이 붉도록 부끄러울 적이며,
나는 내 슬픔과 어리석음에 놀리어 죽을 수 밖에 없는 것을 느끼는 것이었다.
그러나 잠시 뒤에 나는 고개를 들어
허연 문창을 바라보든가 또 눈을 떠서 높은 천장을 쳐다보는 것인데,
이때 나는 내 뜻이며 힘으로, 나를 이끌어 가는 것이 힘든 일인 것을 생각하고,
이것들보다 더 크고, 높은 것이 있어서, 나를 마음대로 굴러 가는 것을 생각하는 것인
데,
이렇게 하여 여러 날이 지나는 동안에,
내 어지러운 마음에는 슬 픔이며, 한 탄이며, 가라앉을 것은 차츰 양금이 되어 가라앉
고,
외로운 생각만이 드는 때쯤 해서는,
더러 나뭇손에 쌀랑쌀랑 싸락눈이 와서 문창을 치기도 하는 때도 있는데,
나는 이런 저녁에는 화로를 더욱 다가끼며, 무릎을 꿇어보며,
어느 먼 산 뒷옆에 바우섬에 따로 외로이 서서,
어두워 오는데 하이야니 눈을 맞을, 그 마른 잎새에는,
쌀랑쌀랑 소도 나며 눈을 맞을
그 드물다는 굳고 정한 갈매나무라는 나무를 생각하는 것이었다

별 헤는 밤

시 : 윤 동 주
낭송 : 류 혜 원

계절이 지나가는 하늘에는 가을로 가득 차 있습니다.

나는 아무 걱정도 없이
가을 속의 별들을 다 헤는 듯합니다.

가슴 속에 하나 둘 새겨지는 별을
이제 다 못 헤는 것은
쉬이 아침이 오는 까닭이요
내일 밤이 남은 까닭이요
아직 나의 청춘이 다 하지 않은 까닭입니다.

별 하나에 추억과
별 하나에 사랑과
별 하나에 쓸쓸함과
별 하나에 동경과
별 하나에 시와
별 하나에 어머니, 어머니,

어머님, 나는 별 하나에 아름다운 말 한마디씩 불러 봅니다.
소학교 때 책상을 같이 했던 아이들의 이름과 꽤, 경, 옥,
이런 이국 소녀들의 이름과, 벌써 아기 어머니된 계집애들의
이름과, 가난한 이웃 사람들의 이름과, 비둘기, 강아지, 토끼,
노새, 노루, '프랑시스 잠', '라이너 마리아 릴케' 이런 시인의
이름을 불러 봅니다.
이네들은 너무나 멀리 있습니다.
별이 아스라이 멀 듯이.

어머님,
그리고 당신은 멀리 북간도에 계십니다.

나는 무엇인지 그리워
이 많은 별빛이 내린 언덕 위에
내 이름자를 써 보고
흙으로 덮어 버렸습니다.

딴은 밤을 새워 우는 벌레는
부끄러운 이름을 슬퍼하는 까닭입니다.

그러나 겨울이 지나고 나의 별에도 봄이 오면
무덤 위에 파란 잔디가 피어나듯이
내 이름자 묻힌 언덕 우에도
자랑처럼 풀이 무성할거외다.

님의 침묵

시 : 한 용 운
낭송 : 문 정 엽

님은 갔습니다
아아 사랑하는 나의님은 갔습니다
푸른 산빛을 깨치고 단풍나무 숲을 향하여
난 작은 길을 걸어서 차마 떨치고 갔습니다
황금의 꽃처럼 굳고 빛나던 옛 맹세는
차디찬 티끌이 되어서 한숨의 미풍에 날아갔습니다
날카로운 킷키스의 추억은
나의 운명의 지침을 돌려놓고 뒷걸음쳐서 사라졌습니다
나는 향기로운 님의 말소리에 귀먹고 꽃다운 님의 얼굴에 눈멀었습니다
사랑도 사람의 일이기에 만날 때에 미리 떠날 것을
염려하고 경계하지 아니한것은 아니지만
이별은 뜻밖의 일이 되고 놀란 가슴은 새로운 슬픔에 터집니다
그러나 이별을 쓸데없는 눈물의 원천을 만들고 마는 것은
스스로 사랑을 깨치는 일인 것인 줄 아는 까닭에
견잡을 수 없는 슬픔의 힘을 옮겨서
새 희망의 정수박이에 들어부었습니다
우리는 만날 때에 떠날 것을 염려하는 것과 같이
떠날 때에 다시 만날 것을 믿습니다
아아님은 갔지만은 나는 님을 보내지 아니하였습니다
제 곡조를 못 이기는 사랑의 노래는 님의 침묵을 휩싸고 돕니다

남에게

시 : 양 성 우
낭송 : 문 종 원

그대가 못 오는가
내가 못 가는가
밤새워 뒤척여도
이 가슴에 가득히 차오르는 님

혼자라도 둘처럼
속삭여 볼까

으스러지게 끌어안고 울어나볼까

그대와 함께 타고
재가 되리라
이 소원 하나로 세월을 보내네

목마와 숙녀

시 : 박 인 환
낭송 : 박 건 희

한잔의 술을 마시고
우리는 버어지니아 울프의 생애와
목마를 타고 떠난 숙녀의 옷자락을 이야기 한다
목마는 주인을 버리고 거저 방울 소리만 울리며
가을 속으로 떠났다. 술병에서 별이 부서진다
그러한 잠시 내가 알던 소녀는
정원의 초목 옆에서 자라고
문학이 죽고 인생이 죽고
사랑의 진리마저 애증의 그림자를 버릴 때
목마를 탄 사랑의 사람은 보이지 않는다
세월은 가고 오는 것
한 때는 고립을 피하여 시들어가고
이제 우리는 작별하여야 한다
술병이 바람에 쓰러지는 소리를 들으며
늙은 여류 작가의 눈을 바라보아야 한다
....등대에....
불이 보이지 않아도
거저 간직한 폐시미즘의 미래를 위하여
우리는 처량한 목마소리를 기억하여야 한다
모든 것이 떠나든 죽든
거저 가슴에 남은 희미한 의식을 붙잡고
우리는 버어지니아 울프의 서러운 이야기를 들어야 한다
두개의 바위 틈을 지나 청춘을 찾은 뱀과 같이
눈을 뜨고 한잔의 술을 마셔야 한다
인생은 외롭지도 않고
거저 잡지의 표지처럼 통속하거늘
한탄할 그 무엇이 무서워서 우리는 떠나는 것일까
목마는 하늘에 있고
방울소리는 컷전에 철렁거리는데
가을바람 소리는 내 쓰러진 술병 속에서 목메어 우는데

여 승

시 : 백 석
낭송 : 박 경 애

여승은 합장하고 절을 했다
가지취의 내음새가 났다
쓸쓸한 낮이 옛날같이 늙었다
나는 불경처럼 서러워졌다

평안도의 어느 산 깊은 금점판
나는 파리한 여인에게서 옥수수를 샀다
여인은 나 어린 딸아이를 때리며 가을밤같이 차게 울었다

선별같이 나아간 지아비 기다려 십 년이 갔다
지아비는 돌아오지 않고
어린 딸은 도라지꽃이 좋아 돌무덤으로 갔다

산꿩도 숲게 울은 슬픈 날이 있었다
산절의 마당귀에 여인의 머리오리가 눈물 방울과 같이
떨어진 날이 있었다

꽃덤불

시 : 신 석 정
낭송 : 박 덕 희

태양을 의논하는 거룩한 이야기는
항상 태양을 등진 곳에서만 비롯하였다

달빛이 흡사 비 오듯 쏟아지는 밤에도
우리는 헐어진 성터를 헤매이면서
언제 참으로 그 언제 우리 하늘에
오롯한 태양을 모시겠느냐고
가슴을 쥐어뜯으며 이야기하며 이야기하며
가슴을 쥐어뜯지 않았느냐?

그러는 동안에 영영 잃어버린 벗도 있다
그러는 동안에 멀리 떠나버린 벗도 있다
그러는 동안에 몸을 팔아버린 벗도 있다
그러는 동안에 맘을 팔아버린 벗도 있다

그러는 동안에 드디어 서른여섯 해가 지나갔다

다시 우러러보는 이 하늘에
겨울밤 달이 아직도 차거니
오는 봄엔 분수처럼 쏟아지는 태양을 안고

그 어느 언덕 꽃덤불에 아늑히 안겨 보리라.

여승

시 : 송 수 권
낭송 : 박 미 경

어느 해 봄날이던가, 밖에서는
살구꽃 그림자에 뿌여니 흙바람이 끼고
나는 하루종일 방안에 누워서 고별을 앓았다.
문을 열면 도진다 하여 손가락에 침을 발라가며
장지문에 구멍을 뚫어
토방 아래 고깔 쓴 女僧이 서서 염불 외는 것을 내다보았다
그 고랑이 깊은 음색, 설움에 진 눈동자, 창백한 얼굴
나는 처음 황홀했던 마음을 무어라 표현할 순 없지만
우리집 처마끝에 걸린 그 수그린 낫달의 포름한 향내를 아직도 잊을 수가
없다
나는 너무 애지고 막막하여져서 사립을 벗어나
면발치로 바릿대를 든 女僧의 뒤를 따라 돌며
동구 밖까지 나섰다
여승은 네거리 큰 갈림길에 이르러서야 처음으로 뒤돌아보고
우는 듯 웃는 듯 얼굴상을 지었다

(도련님, 小僧에겐 너무 과분한 적선입니다. 이젠
바람이 참사운데 그만 들어가보셔얍지요.)

나는 무엇을 잘못하여 들킨 사람처럼 마주서서 합장을 하고
오던 길로 되돌아 뛰어오며 열에 흐들히 젖은 얼굴에
마구 흙바람이 일고 있음을 알았다.
그뒤로 나는 女僧이 우리들 손이 닿지 못하는 먼 절간 속에
산다는 것을 알았으며 이따금 꿈속에선
지금도 머룻잎 이슬을 털며 산길을 내려오는
女僧을 만나곤 한다.
나는 아직도 이 세상 모든 事物 앞에서 내 가슴이 그때처럼
순수하고 깨끗한 사랑으로 넘쳐흐르기를 기도하며
詩를 쓴다.

꽃뎨불

시 : 신 석 정
낭송 : 박 정 숙

태양을 의논하는 거룩한 이야기는
항상 태양을 등진 곳에서만 비롯하였다

달빛이 흡사 비 오듯 쏟아지는 밤에도
우리는 헐어진 성터를 헤매이면서
언제 참으로 그 언제 우리 하늘에
오롯한 태양을 모시겠느냐고
가슴을 쥐어뜯으며 이야기하며 이야기하며
가슴을 쥐어뜯지 않았느냐?

그러는 동안에 영영 잃어버린 벗도 있다
그러는 동안에 멀리 떠나버린 벗도 있다
그러는 동안에 몸을 팔아버린 벗도 있다
그러는 동안에 맘을 팔아버린 벗도 있다

그러는 동안에 드디어 서른여섯 해가 지나갔다

다시 우러러보는 이 하늘에
겨울밤 달이 아직도 차거니
오는 봄엔 분수처럼 쏟아지는 태양을 안고

그 어느 언덕 꽃뎨불에 아늑히 안겨 보리라.

논개의 애인이 되어 그의 묘에

시 : 한 용 운
낭송 : 박 창 영

날과 밤으로 흐르고 흐르는 남강은 가지 않습니다.
바람과 비에 우두커니 섰는 축석루는 살 깊은 광음을 따라서 달음질칩니다.
논개여, 나에게 울음과 웃음을 동시에 주는 사랑하는 논개여.
그대는 조선의 무덤 가운데 피었던 좋은 꽃의 하나이다.
그래서 그 향기는 썩지 않는다.
나는 시인으로 그대의 애인이 되었노라.
그대는 어디 있느냐.
죽지 않는 그대가 이 세상에는 없구나.
나는 황금의 칼에 베어진 꽃과 같이 향기롭고 애처로운 그대의 당년을 회상한다.
술 향기에 목땀한 고요한 노래는 옥에 묻힌 썩은 칼을 울렸다.
춤추는 소매를 안고 도는 무서운 찬바람은
귀신 나라의 꽃수풀을 거쳐서 떨어지는 해를 얼렸다.
가냘픈 그대의 마음은 비록 침착하였지만 떨리는 것보다도 더욱 무서웠다.
아름답고 무독한 그대의 눈은 비록 웃었지만 우는 것보다도 더욱 슬펐다.
붉은 듯하다가 푸르고 푸른 듯하다가 희어지며
가늘에 떨리는 그대의 입술은 웃음의 조운이나 울음의 모우이나
새벽달의 비밀이나 이슬꽃의 상징이나.
빠비같은 그대의 손에 꺾이우지 못한 낙화대의 남은 꽃은
부끄럼에 취하여 얼굴이 붉었다.
옥 같은 그대의 발꿈치에 밝히운 강 언덕이 묵은 이끼는 교궁에 넘쳐서
푸른 사롱으로 자기의 제명을 가리었다.
아아. 나는 그대가 없는 빈 무덤 같은 집을 그대의 집이라고 부릅니다.
만일 이름뿐이나마 그대의 집도 없으면
그대의 이름을 불러 볼 기회가 없는 까닭입니다.
나는 꽃을 사랑합니다만은 그대의 집에 꽃을 심을 수는 없습니다.
그대의 집에 꽃을 심으려면 나의 가슴에 가시가 먼저 심어지는 까닭입니다.
용서하여요 논개여,
금석같은 굳은 언약을 저버린 것은 그대가 아니요 나입니다.
용서하여요 논개여,
쓸쓸하고 호젓한 잠자리에 외로이 누워서
끼친 한에 울고 있는 것은 내가 아니요 그대입니다.
나의 가슴에 '사랑'의 글자를 황금으로 새겨서
그대의 사당에 기념비를 세운 그대에게 무슨 위로가 되오리까.
나의 그대에게 '눈물'의 곡조를 낙인으로 찍어서 그대의 사당에 제종을 올린대도

나에게 무슨 속죄가 되오리까.
나는 다만 그대의 유언대로 그대에게 다하지 못한 사랑을
영원히 다른 여자에게 주지아니할 뿐입니다.
그것은 그대의 얼굴과 같이 잊을 수가 없는 맹세입니다.
용서하여요 논개여,

그대가 용서하면 나의 죄가 신에게 참회를 아니한대도 사라지겠습니다.
천추에 죽지 않는 논개여.
그대를 사랑하는 나의 마음이 얼마나 즐거우며 얼마나 슬프겠는가.
나는 웃음에 겨워서 눈물이 되고 눈물이 겨워서 웃음이 됩니다.
용서하여요. 사랑하는 오오 논개여

청산도

시 : 박 두 진

낭송 : 방 영 희

산아, 우뚝 솟은 푸른 산아, 철 철 철 흐르듯 길푸른 산아.
술한 나무들, 무성히 무성히 우거진 산마루에, 금빛 기름진 햇살은 내려오고,
둥둥 산을 넘어, 흰구름 건넌 자리 씻기는 하늘.
사슴도 안 오고 바람도 안 불고, 넘엇골 골짜기서 울어오는 뺨꾸기.

산아, 푸른 산아. 네 가슴 향기로운 풀밭에 엎드리면, 나는 가슴이 울어라.
흐르는 골짜기 스며드는 물소리에, 내사 줄 줄 줄 가슴이 울어라.
아득히 가버린 것 잊어버린 하늘과, 아른 아른 오지 않는 보고 싶은 하늘에,
어찌면 만나도 질 불이 고운 사람이, 난 혼자 그리워라.
가슴으로 그리워라.

티끌 부는 세상에도 별레 같은 세상에도 눈 맑은, 가슴 맑은, 보고지운 나의 사람.
달밤이나 새벽녘, 홀로 서서 눈물어릴 불이 고운 나의 사람.
달 가고, 밤 가고, 눈물도 가고, 띄어 올 밝은 하늘 빛난 아침 이르면,
향기로운 이슬밭 푸른 언덕을, 총 총 총 달려도 와줄 불이 고운 나의 사람.

푸른 산 한나절 구름은 가고, 골 넘어, 골 넘어, 뺨꾸기는 우는데,
눈에 어려 흘러가는 물결 같은 사람 속, 아우성쳐 흘러가는 물결 같은 사람 속에,
난 그리노라. 너만 그리노라. 혼자서 철도 없이 난 너만 그리노라.

차라리 한 그루 푸른 대로

시 : 신 석 정
낭송 : 배 동 순

성근 대숲이 하늘보다 맑아
땀얼마다 젖어드는 햇별이 분수처럼 사뭇 푸르고

아라사의 숲에서 인도에서
조선의 하늘에서 알래스카에서
찬란하게도 슬픈 노래를 배워낸 바람이 대숲에 돌아들어
돌아드는 바람에 슬픈 바람에 나는 젖어 원뿔이 젖어……

란아
태양의 푸른 분수가 숨막히게 쏟아지는
하늘 아래로만 하늘 아래로만
흰 나리꽃이 핀 술하게 핀 굽어진 길이 놓여 있다
너도 어서 그 길로 돌아오라 흰 나비처럼 곱게 돌아오라
엽맥이 드러나게 찬란한 이 대숲을 향하고……

하늘 아래 새로 비롯한 슬픈 이야기가 대숲에 있고
또 먼 세월이 가져올 즐거운 이야기가 대숲에 있고
꿀벌처럼 이 이야기들을 물어 날르고 또 물어내는
바람이 있고 태양의 분수가 있는 대숲
대숲이 좋지 않으나

란아
푸른 대가 무성한 이 언덕에 앉아서
너는 노래를 불러도 좋고 새같이 지출대도 좋다
지치도록 말이 없는 이 오랜 날을 지니고
병어리처럼 목놓아 울 수도 없는 너의 아버지 나는
차라리 한 그루 푸른 대로
내 심장을 삼으리라.

그대 오는 길 등불 밝히고

시 : 이 해 인
낭송 : 서 진 숙

내가슴 깊은 곳에
그리운 등불 하나 켜 놓겠습니다
사랑하는 그대 언제든지
내가 그림걸랑
그 등불 향해 오십시오

오늘처럼 하늘빛 따라
슬픔이 몰려오는 날
그대 내게로 오십시오
나 그대 위해 기쁨이
되어 드리겠습니다

삶에 지쳐 어깨가
무겁게 느껴지는 날
그대 내게로 오십시오
나 그대 위해 빈 의자가
되어 드리겠습니다

가슴이 허전해 함께 할
친구가 필요한 날
그대 내게로 오십시오
나 그대의 좋은 친구가
되어 드리겠습니다

그대 내게 오실 땐
푸르른 하늘 빛으로 오십시오
고운 향내 전하는
바람으로 오십시오
그리고, 그대 내게 오시기 전
갈색 그리운 낙엽으로
먼저 오십시오

나 오늘도 그대 향한
그리운 등불 하나
켜 놓겠습니다

자화상

시 : 서 정 주
낭송 : 선 명 숙

애비는 종이였다. 밤이 깊어도 오지 않았다.
파뿌리같이 늙은 할머니와 대추꽃이 한 주 서 있을 뿐이었다.
어매는 달을 두고 풋살구가 꼭 하나만 먹고 싶다 하였으나……
흙으로 바람벽한 호롱불 밑에
손톱이 까만 에미의 아들.
갑오년(甲午年)이라든가 바다에 나가서는 돌아오지 않는다 하는 할아버지의
술 많은 머리털과 그 커다란 눈이 나는 닮았다 한다.

스물 세 해 동안 나를 키운 건 팔할(八割)이 바람이다.
세상은 가도 가도 부끄럽기만 하더라.
어떤 이는 내 눈에서 죄인(罪人)을 읽고 가고
어떤 이는 내 입에서 천치(天痴)를 읽고 가나
나는 아무것도 뉘우치진 않으려다.

찬란히 띄어 오는 어느 아침에도
이마 위에 얹힌 시(詩)의 이슬에는
몇 방울의 피가 언제나 섞여 있어
별이거나 그늘이거나 햇바닥 늘어뜨린
병든 수캐마냥 혈떡거리며 나는 왔다.

청산도

시 : 박 두 진

낭송 : 송 남 숙

산아, 우뚝 솟은 푸른 산아, 철 철 철 흐르듯 길푸른 산아.
술한 나무들, 무성히 무성히 우거진 산마루에, 금빛 기름진 햇살은 내려오고,
둥둥 산을 넘어, 흰구름 건넌 자리 씻기는 하늘.
사슴도 안 오고 바람도 안 불고, 넘엇골 골짜기서 울어오는 뺨꾸기.

산아, 푸른 산아. 네 가슴 향기로운 풀밭에 엎드리면, 나는 가슴이 울어라.
흐르는 골짜기 스며드는 물소리에, 내사 줄 줄 줄 가슴이 울어라.
아득히 가버린 것 잊어버린 하늘과, 아른 아른 오지 않는 보고 싶은 하늘에,
어찌면 만나도 질 불이 고운 사람이, 난 혼자 그리워라.
가슴으로 그리워라.

티끌 부는 세상에도 별레 같은 세상에도 눈 맑은, 가슴 맑은, 보고지운 나의 사람.
달밤이나 새벽녘, 홀로 서서 눈물어릴 불이 고운 나의 사람.
달 가고, 밤 가고, 눈물도 가고, 티어 올 밝은 하늘 빛난 아침 이르면,
향기로운 이슬밭 푸른 언덕을, 총 총 총 달려도 와줄 불이 고운 나의 사람.

푸른 산 한나절 구름은 가고, 골 넘어, 골 넘어, 뺨꾸기는 우는데,
눈에 어려 흘러가는 물결 같은 사람 속, 아우성쳐 흘러가는 물결 같은 사람 속에,
난 그리노라. 너만 그리노라. 혼자서 철도 없이 난 너만 그리노라.

님의 침묵

시 : 한 용 운
낭송 : 송 순 복

님은 갔습니다
아아 사랑하는 나의님은 갔습니다
푸른 산빛을 깨치고 단풍나무 숲을 향하여
난 작은 길을 걸어서 차마 떨치고 갔습니다
황금의 꽃처럼 굳고 빛나던 옛 맹세는
차디찬 티끌이 되어서 한숨의 미풍에 날아갔습니다
날카로운 킷키스의 추억은
나의 운명의 지침을 돌려놓고 뒷걸음쳐서 사라졌습니다
나는 향기로운 님의 말소리에 귀먹고 꽃다운 님의 얼굴에 눈멀었습니다
사랑도 사람의 일이기에 만날 때에 미리 떠날 것을
염려하고 경계하지 아니한것은 아니지만
이별은 뜻밖의 일이 되고 놀란 가슴은 새로운 슬픔에 터집니다
그러나 이별을 쓸데없는 눈물의 원천을 만들고 마는 것은
스스로 사랑을 깨치는 일인 것인 줄 아는 까닭에
견잡을 수 없는 슬픔의 힘을 옮겨서
새 희망의 정수박이에 들어부었습니다
우리는 만날 때에 떠날 것을 염려하는 것과 같이
떠날 때에 다시 만날 것을 믿습니다
아아님은 갔지만은 나는 님을 보내지 아니하였습니다
제 곡조를 못 이기는 사랑의 노래는 님의 침묵을 휩싸고 돕니다

의자

시 : 김 명 인
낭송 : 송 은 주

창고에서 의자를 꺼내
처마 밑 계단에 얹어놓고 진중일
서성거려온 내 몸에게도 앉기를 권했다
와서 앉으렴, 내 몸은
너무 오래 서 있거나 걸어왔다
때로는 창고 구석에 처박혀
어둠을 주인으로 섬기기도 했다
마른장마에 잔 비 뿌리다 마는 오늘
어느새 다 자란 저 벼들을 보면
들판의 주인은 바람인가,
온 다리가 휘청거리면서도 바람에게
의자를 내주는 것은
그 무게로 벼를 익히는 것이라 깨닫는다
흔들리는 생각이 저절로 무거워져
의자를 이마 높이로 받들고 싶어질 때
저쪽 구산 자락은 훨씬 이전부터 정지의 자세로
지그시 뒷발을 내리고 파도를 등에 업는 것을 본다
우리에게 어떤 안식이 있느냐고 네가
네번째 나에게 묻는다
모든 것을 부인한 한낮인데 부지런한
낮답이 어디선가 길게 또 운다
아무도 없는데 무엇인가 내 어깨에 걸터앉아
하루 종일 힘겹게 흔들린다

행복

시 : 유 치 환
낭송 : 송 헌 정

사랑하는 것은
사랑을 받느니보다 행복하나니라
오늘도 나는
에메랄드빛 하늘이 환희 내다뵈는
우체국 창문 앞에 와서 너에게 편지를 쓴다

행길을 향한 문으로 술한 사람들이
제각기 한 가지씩 생각에 족한 얼굴로 와선
총총히 우표를 사고 전보지를 받고
먼 고향으로 또는 그리운 사람께로
슬프고 즐겁고 다정한 사연들을 보내나니

세상의 고달픈 바람결에 시달리고 나부끼어
더욱더 의지 삼고 피어 형클어진 인정의 꽃밭에서
너와 나의 애뜻한 연분도
한 망울 연연한 진홍빛 양귀비꽃인지도 모른다

사랑하는 것은
사랑을 받느니보다 행복하나니라
오늘도 나는 너에게 편지를 쓰나니
그리운 이여 그러면 안녕

설령 이것이 이 세상 마지막 인사가 될지라도
사랑하였으므로 나는 진정 행복하였네라.

가난한 이름에게

시 : 김 남 조
낭송 : 송 혜 진

이 넓은 세상에서
한 사람도 고독한 남자를 만나지 못해
나 쓰일모 없이 살다 갑니다.

이 넓은 세상에서
한 사람도 고독한 여인을 만나지 못해
당신도 쓰일모 없이 살다갑니까?

검은 벽의
검은 꽃 그림자 같은
어두운 향료

고독 때문에
노상 술을 마시는 고독한 남자들과

이가 시린 한 겨울밤
고독 때문에
한껏 사랑을 생각하는 고독한 여인네와

이렇게들 모여 사는 멋진 세상에서
얼굴을 가리고
고독이 아쉬운 내가 돌아갑니다.

불신과 가난
그 중 특별하기론 역시 고독 때문에
어딘지를 서성이는 고독한 남자들과

허무와 이별
그 중 특별하기론 역시 고독 때문에
때로 골똘히 죽음을 생각하는 고독한 여인네와

이렇게들 모여 사는 멋진 세상에서
머리를 수그리고
당신도 고독이 아쉬운 채 돌아갑니까?

인간이라는 가난한 이름에
고독도 과해서 못 가진 이름에
울면서 눈감고 입술을 대는 밤

이 넓은 세상에서
한 사람도 고독한 남자를 만나지 못해
나는 쓰일모 없이 살다 갑니다.

차라리 한 그루 푸른 대로

시 : 신 석 정
낭송 : 신 남 춘

성근 대숲이 하늘보다 맑어
땀얼마다 젖어드는 햇별이 분수처럼 사뭇 푸르고

아라사의 숲에서 인도에서
조선의 하늘에서 알래스카에서
찬란하게도 슬픈 노래를 배워낸 바람이 대숲에 돌아들어
돌아드는 바람에 슬픈 바람에 나는 젖어 원뿔이 젖어……

란아
태양의 푸른 분수가 숨막히게 쏟아지는
하늘 아래로만 하늘 아래로만
흰 나리꽃이 핀 술하게 핀 굽어진 길이 놓여 있다
너도 어서 그 길로 돌아오라 흰 나비처럼 곱게 돌아오라
엽맥이 드러나게 찬란한 이 대숲을 향하고……

하늘 아래 새로 비롯한 슬픈 이야기가 대숲에 있고
또 먼 세월이 가져올 즐거운 이야기가 대숲에 있고
꿀벌처럼 이 이야기들을 물어 날르고 또 물어내는
바람이 있고 태양의 분수가 있는 대숲
대숲이 좋지 않으나

란아
푸른 대가 무성한 이 언덕에 앉아서
너는 노래를 불러도 좋고 새같이 지줄대도 좋다
지치도록 말이 없는 이 오랜 날을 지니고
병어리처럼 목놓아 울 수도 없는 너의 아버지 나는
차라리 한 그루 푸른 대로
내 심장을 삼으리라.

나의 어머니

시 : 안 영 희
낭송 : 안 영 희

작은 육신 흔들여 온 몸으로 살아 내셨던
당신은 어디에 계신가요
고통의 세월을 보내셨고
소리 없는 눈물로 세상을 바라보셨던 당신은
하늘이 얼마나 맑고 파란 하늘인지 알고 계셨나요

촉촉한 가슴의 감정도 표현하지 못한
당신은 어디에 계신가요
폭염의 사나움에도
그늘이 되어 주셨던 나의 어머니
공공 얼어붙은 냇가에서도
손을 호호 불어가며
빨래 해 주셨던 나의 어머니

이 땅의 삶이 찢어질 듯 한 당신의 삶이었음에도
당신의 씨앗의 뿌리가 다칠까봐
인내하셨던 내 어머니
강산이 여러번 바뀌어 지고서야
내 얼굴의 주름과 손마디가 굵어지고서야
당신의 깊은 뜻을 알 수 있었습니다

불러 보고 싶어라
심장 뛰는 가슴을 느껴보고 싶어라
손을 잡고 걷고 싶어라
그러나 지금은 함께 할 수 없는 나의 어머니
하루라도 내 옆에 계신다면
내 손으로 좋아하셨던 음식 한번만이라도
차려주고 싶네 나의 어머니
당신은 위대한 내 어머니
천국에 계신 줄 알고 있기에 살아갈 힘이 있습니다

지금은 결코 꽃이 아니라도 좋아라

시 : 양 성 우
낭송 : 안 정 희

지금은 결코
꽃이 아니라도 좋아라
총창뿐인 마음에 과녁이 되어서
소리없이 어둠 속에 쓰러지면서
네가 흘린 피방울이 살아남아서
오는 봄에 풀뿌리를 적셔준다면
지금은 결코 꽃이 아니라도 좋아라

골백번 쓰러지고
다시 일어나는
이 진흙의 한반도에서
다만 녹슬지 않는 비싼 냇으로
밤이나 낮이나 과녁이 되어
네가 죽고 다시 죽어
스며들지라도
오는 봄에 나무 끝을 쓰다듬어주는
작은 바람으로 돌아온다면
지금은 결코 꽃이 아니라도 좋아라
끈끈한 눈물로
잠시 머물다가 갈지라도
불보다 뜨거운 깃발로
네가 어느 날 갑자기 이 땅을 깨우고
남과 북이 온몸으로 소리칠 수 있다면
지금은 결코
꽃이 아니라도 좋아라

엄동설한에 재갈 물려서
식구대로 서럽게 재갈 물려서
여기저기 쫓기며 굶주리다가
네가 죽은 그 자리에 과녁이 되어
우두커니 늘어서서 눈감을지라도
오직 한 마디 민주주의, 그리고
증오가 아니라 포용으로
네가 일어서서 돌아온다면
지금은 결코
꽃이 아니라도 좋아라
이 저주받은 삼천리에 피었다 지는
모오든 꽃들과
지금은 결코
꽃이 아니라도 좋아라

당신을 보았습니다

시 : 한 용 운
낭송 : 양 종 열

당신이 가신 뒤로 나는 당신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까닭은 당신을 위하느니보다 나를 위함이 많습니다.

나는 갈고 심을 땅이 없으므로 추수가 없습니다.
저녁거리가 없어서 조나 감자를 꾸러 이웃집에 갔더니 주인은
"거지는 인격이 없다. 인격이 없는 사람은 생명이 없다.
너를 도와주는 것은 죄악이다"고 말하였습니다.
그 말을 듣고 돌아 나올 때에 쏟아지는 눈물 속에서
당신을 보았습니다.

나는 집도 없고 다른 까닭을 겸하여 민적(民籍)이 없습니다.
"민적 없는 자는 인권이 없다. 인권이 없는 너에게 무슨 정조냐?
하고 능욕하려는 장군이 있었습니다.
그를 항거한 뒤에
남에게 대한 격분이 스스로의 슬픔으로 화하는 찰나에
당신을 보았습니다.

아아, 온갖 윤리, 도덕, 법률은
칼과 황금을 제사 지내는 연기인 줄을 알았습니다.
영원의 사랑을 받을까
인간 역사의 첫 페이지에 잉크칠을 할까
술을 마실까
망설일 때에 당신을 보았습니다.

여승

시 : 송 수 권
낭송 : 오 양 임

어느 해 봄날이던가, 밖에서는
살구꽃 그림자에 뿌여니 흙바람이 끼고
나는 하루종일 방안에 누워서 고삿을 앓았다.
문을 열면 도진다 하여 손가락에 침을 발라가며
장지문에 구멍을 뚫어
토방 아래 고깔 쓴 여승이 서서 염불 외는 것을 내다보았다.
그 고랑이 깊은 음색, 설움에 진 눈동자, 창백한 얼굴
나는 처음 황홀했던 마음을 무어라 표현할 순 없지만
우리집 처마 끝에 걸린 그 수그린 낫달의 포름한 향내를
아직도 잊을 수가 없다

나는 너무 애지고 막막하여져서 사립을 벗어나
먼 발치로 바리때를 든 여승의 뒤를 따라 돌며
동구밖까지 나섰다
여승은 네거리 큰 갈림길에 이르러서야 처음으로 뒤돌아보고
우는 듯 웃는 듯 얼굴상을 지었다
(도련님, 소송에겐 너무 과분한 적선입니다. 이제 바람이 참사운데 그만 들어가 보
셔압지요.)
나는 무엇을 잘못하여 들킨 사람처럼 마주서서 합장을 하고
오던 길을 되돌아 뛰어오며 열에 흐들히 젖은 얼굴에
마구 흙바람이 일고 있음을 알았다.

그 뒤로 나는 여승이 우리들 손이 닿지 못하는 먼 절간 속에
산다는 것을 알았으며 이따금 꿈속에선
지금도 머릿잎 이슬을 털며 산길을 내려오는
여승을 만나곤 한다.
나는 아직도 이 세상 모든 사물 앞에서 내 가슴이 그때처럼
순수하고 깨끗한 사랑으로 넘쳐흐르기를 기도하며
시를 쓴다.

누가 하늘을 보았다 하는가

시 : 신 동 엽
낭송 : 우 정 연

누가 하늘을 보았다 하는가
누가 구름 한 송이 없이 맑은
하늘을 보았다 하는가.

네가 본 건, 먹구름
그걸 하늘로 알고
일생을 살아갔다.

네가 본 건, 지붕 덮은 쇠 항아리
그걸 하늘로 알고
일생을 살아갔다.

뒹아라, 사람들아
네 마음속 구름
찢어라, 사람들아
네 머리 덮은 쇠 항아리

아침 저녁
네 마음속 구름을 뒹고
티없이 맑은 영혼의 하늘
볼 수 있는 사람은
외경을
알리라.

아침 저녁
네 머리 위 쇠항아릴 찢고
티없이 맑은 구원의 하늘
마실 수 있는 사람은
연민을
알리라.

차마 삼가서
발걸음도 조심
마음 조아리며
서럽게
아, 엄숙한 세상을
서럽게
눈물 흘려
살아가리라.

누가 하늘을 보았다 하는가
누가 구름 한 자락 없이 맑은
하늘을 보았다 하는가

노래하는 사람

시 : 이 기 철
낭송 : 유 영 준

납가새 조개풀들 우거진 채 하늘 가려
홀로 애처로운 향초잎 내밀 하늘이 없다
자락마다 못에 찢린 슬픈 꿈들을
온 아침 새로 내린 이슬 한 방울로 씻는다

미농지 같은 봄 풀이 사나운 역새되기까지는
경건한 귀를 가진 시인이여, 유독 나무 앞에서
기다려야 한다
그대 가슴 좁아 저토록 풍만한 여름 다 껴안지 못해도
수천의 잎사귀로 대지 위에 그늘을 만들어 주는
저 뿌리의 땀뻘 노동을 그대 아니면 누가 노래하리

낙타 등 같이 굽은 산 아래
제 아이 이름 부르듯 풀이름 부르며 사는 사람이여
봄날은 항상 고통으로 다가와서
계절을 펄펄 끓여 놓고 떠나지만
이마 맞댄 처마들 낮아 그 아래 신발 벗어놓고 잠드는 사람이란
무 배추의 연명 아니면 날선 고통들 어떻게
제 몸 지켜 쓰다듬을 수 있을까

내 먼지 묻은 소매자락으로 눈물 닦아
그 먼지 눈시울에 다시 묻혀도
사람들이 지나간 길에 남루와 증오대신
따스한 노래 한 가닥 남을 수 있기를,
꺾전을 스치는 노래 한 가닥이면
삶의 잉겔불에 데인 몸에 새살 돈을 지니

나는 노래 부르는 사람
오늘 저녁 한 끼 식사도 추청쌀 한 움큼 솔에 안치며
그 아궁이의 불빛에 낮 붉히며 노래하는 사람

설악부

시 : 박 두 진
낭송 : 유 춘 목

부여안은 치맛자락, 하얀 눈바람이 훑날린다.
골이고 봉우리고 모두 눈에 하얗게 뒤덮였다.
사뭇 무릎까지 빠진다.
나는 예가 어디 저 북극이나 남극 그런 데로도 생각하며 걷는다.

파랗게 하늘이 얼었다. 하늘에 나는 후우 입김을 뿜어 본다.
스러지며 올라간다. 고요하다. 너무 고요하여 외롭게 나는 태고(太古)!태고에 놓여 있다.

왜 이렇게 자꾸 나는 산만 찾아 나서는 겠까?
- 내 영원한 어머니…….내가 죽으면 백골이 이런 양지쪽에 묻힌다. 외롭게 묻어라.

꽃이 피는 때, 내 푸른 무덤엔 한 포기 하늘빛 도라지꽃이 피고,
거기 하나 하얀 산나비가 날아라. 한 마리 멧새도 와 울어라.
달밤에 두견! 두견도 와 울어라.

언제 새로 다른 태양, 또 다른 태양이 쬐는 날 아침에 내가 다시 무덤에서 부활할 것도 믿어본다.

나는 눈을 감아 본다. 순간 번뜩 영원이 어린다……
인간들! 지금 이 땅 위에서 서로 아우성치는 수많은 인간들이,
그래도 멀하지 않고 오래오래 세대를 이어 살아갈 것을 생각한다.

우리 족속도 이어 자꾸 나며 죽으며,
멀하지 않고 오래 오래 이 땅에서 살아갈 것을 생각한다.

언제 이런 설악까지 웅통 꽃동산 꽃동산이 되어,
우리가 모두 서로 노래치며 날뛰며,
진정 하루 화창하게 살아볼 날이 그림다. 그림다.

사랑법

시 : 강 은 교
낭송 : 육 미 경

떠나고 싶은 자
떠나게 하고
잠들고 싶은 자
잠들게 하고
그리고도 남는 시간은
침묵할 것

또는 꽃에 대하여
또는 하늘에 대하여
또는 무덤에 대하여

서둘지 말 것
침묵할 것

그대 살 속의
오래 전에 굳은 날개와
흐르지 않는 강물과
누워있는 누워있는 구름
결코 잠깨지 않는 별을

쉽게 꿈꾸지 말고
쉽게 흐르지 말고
쉽게 꽃피지 말고
그러므로

실눈으로 볼 것
떠나고 싶은 자
홀로 떠나는 모습을
잠들고 싶은 자
홀로 잠드는 모습을

가장 큰 하늘은 언제나
그대 등 뒤에 있다

황혼

시 : 이 육 사
낭송 : 은 희 란

내 골방의 커튼을 걷고
정성된 마음으로 황혼을 맞아 들이노니
바다의 흰 갈매기들 같이도
인간은 얼마나 외로운 것이냐.

황혼아, 네 부드러운 손을 힘껏 내밀라
내 뜨거운 입술을 마음대로 맞추어 보련다.
그리고 네 품안에 안긴 모든 것에
나의 입술을 보내게 해다오.

저 십이성좌의 반짝이는 별들에게도
종소리 저문 삼림속 그윽한 수녀들에게도
시멘트 장관의 그 많은 수인들에게도
의지가 지없는 그들의 심장이 얼마나 떨고있는가.

고비사막을 걸어가는 낙타탄 행상대에게나
아프리카 녹음속 활쏘는 토인들에게라도
황혼아, 네 부드러운 품안에 안기는 동안이라도
지구의 반쪽만을 나의 타는 입술에 맡겨다오.

네 오월의 골방이 아늑도 하니
황혼아, 내일도 또 저푸른 커튼을 걷게하겠지
암암히 사라지는 시냇물소리 같아서
한번 식어지면 다시는 돌아올 줄 모르나보다.

연어

시 : 정 호 승
낭송 : 이 경 자

바다를 떠나 너의 손을 잡는다
사람의 손에게 이렇게
따뜻함을 느껴본 것이 그 얼마 만인가
거친 폭포를 뛰어넘어
강물을 거슬러올라가는 고통이 없었다면
나는 단지 한 마리 물고기에 불과했을 것이다
누구나 먼 곳에 있는 사람을 사랑하기는 쉽지 않다
누구나 가난한 사람을 사랑하기는 쉽지 않다
그동안 바다는 너의 기다림 때문에 항상 깊었다
이제 나는 너에게 가장 가까이 다가가 산란을 하고
죽음이 기다리는 강으로 간다
울지 마라
인생을 눈물로 가득 채우지 마라
사랑하기 때문에 죽음은 아름답다
오늘 내가 꾸는 꿈은 네가 꾸는 꿈의 그림자일 뿐
너를 사랑하고 죽으러 가는 한낱
숨은 별들이 고개를 내밀고 총총히 우리를 내려다본다
이제 곧 마른 강바닥에 나의 은빛 시체가 떠오르리라
배고픈 별빛들이 오랜만에 나를 포식하고
웃음을 터뜨리며 밤을 밝히리라

언제 삶이 위기 아닌 적 있었던가

시 : 이 기 철
낭송 : 이 삼 남

언제 삶이 위기 아닌 적 있었던가
겨 입을수록 추워지는 것은 시간과 세월뿐이다
돌의 냉혹, 바람의 칼날, 그것이 삶의 내용이거나
생의 질량 속에 발을 담그면
몸 전체가 잠기는 이 숨막힘

설탕 한 숟갈의 회유에도 글썽이는 날은
이미 내가 잔혹 앞에 무릎 꿇은 날이다
슬픔이 언제 신음소릴 낸 적 있었던가
고통이 언제 뼈를 드러낸 적 있었던가
목조계단 처럼 쿵쿵거리는, 이미 내 친구가 된 고통들
그러나 결코 위기가 우리를 패망시키지는 못한다

내려칠수록 날카로워지는 대장간의 쇠처럼
매질은 따가울수록 생을 단련시키는 채찍이 된다
이것은 결코 수식이 아니니
고통이 끼니라고 말하는 나를 욕하지 말라

누군들 근심의 힘으로 밥 먹고
수심의 디딤돌을 딛고 생을 건너간다
아무도 보료 위에 누워 위기를 말하지 말라
위기의 삶만이 꽃피는 삶이므로.

별까지는 가야 한다

시 : 이 기 철
낭송 : 이 순 애

우리 삶이 먼 여정일지라도
건고 걸어 마침내 하늘까지는 가야 한다
닿은 신발 끝에 노래를 달고
건고 걸어 마침내 별까지는 가야 한다

우리가 깃들인 마을엔 잎새들 푸르고
꽃은 칭찬하지 않아도 향기로 핀다
숲과 나무에 깃든 삶들은 아무리 노래해도
목쭉지 않는다
사람의 이름이 가슴으로 들어와 마침내
꽃이 되는 걸 아는 데
나는 쉼 해를 보냈다
미움도 보듬으면 노래가 되는 걸 아는 데
나는 반생을 보냈다

나는 너무 오래 햇별을 만졌다
이제 햇별을 뒤로 하고 어둠 속으로 걸어가
별을 만져야 한다
나뭇잎이 짜 늘인 그늘이 넓어
마침내 그것이 천국이 되는 것을
나는 이제 배워야 한다

먼지의 세간들이 일어서는 골목을 지나
성사(聖事)가 치러지는 교회를 지나
빛이 쌓이는 사원을 지나
마침내 어둠을 밝히는 별까지는
나는 걸어서 걸어서 가야 한다

여승

시 : 백 석
낭송 : 이 영 실

여승은 합장하고 절을 했다
가지취의 내음새가 났다
쓸쓸한 낮이 옛날같이 늙었다
나는 불경처럼 서러워졌다

평안도의 어늬 산 깊은 금덤판
나는 파리한 여인에게서 옥수수를 샀다
여인은 나 어린 딸아이를 따리며 가을밤같이 차게 울었다

섣별같이 나아간 지아비 기다려 십 년이 갔다
지아비는 돌아오지 않고
어린 딸은 도라지꽃이 좋아 돌무덤으로 갔다

산 꿩도 설게 울은 슬픈 날이 있었다
산 절의 마당귀에 여인의 머리오리가
눈물방울과 같이 떨어진 날이 있었다

옛날의 그 집

시 : 박 경 리
낭송 : 이 원 희

비자루병에 걸린 대추나무 수십 그루가
어느 날 일시에 죽어 자빠진 그 집
십오 년을 살았다

빈 창고같이 횡딩그레한 큰 집에
밤이 오면 소쩍새와 쭉쭉새가 울었고
연못의 맹꽁이는 목이 터져라 소리 지르던
이른 봄
그 집에서 나는 혼자 살았다

다행히 뜯은 넓어서
배추 심고 고추 심고 상추 심고 파 심고
고양이들과 함께
정붙이고 살았다

달빛이 스며드는 차거운 밤에는
이 세상 끝의 끝으로 온 것 같이
무섭기도 했지만
책상 하나 원고지, 펜 하나가
나를 지탱해 주었고
사마천을 생각하며 살았다

그 세월, 옛날의 그 집
나를 지켜주는 것은
오로지 적막뿐이었다
그랬지 그랬었지
대문 밖에서는
늘
짐승들이 으르렁거렸다
늑대도 있었고 여우도 있었고
까치독사 하이에나도 있었지
모진 세월 가고
아아 편안하다 늙어서 이리 편안한 것을
버리고 갈 것만 남아서 참 홀가분하다

청포도

시 : 이 욱 사

낭송자 : 이 인 선

내 고장 칠월은
청포도가 익어가는 시절.

이 마을 전설이 주절이 주절이 열리고
먼 데 하늘이 꿈꾸며 알알이 들어와 박혀,

하늘 밑 푸른 바다가 가슴을 열고,
흰 돛단배가 곱게 밀려서 오면,

내가 바라는 손님은 고달픈 몸으로
청포를 입고 찾아온다고 했으니,

내 그를 맞아 이 포도를 따 먹으면,
두손을 함뱍 적셔도 좋으련.

아이야, 우리 식탁엔 은쟁반에
하이얀 모시 수건을 마련해 두렴.

휩쓸려 가는 것은 바람이다

시 : 박 두 진
낭송 : 이 재 형

휩쓸려 가는 것은 바람이다 .

보고 싶은, 보고 싶은 나라의 사람의 초록빛 이름이다.
빈들의 작은 꽃, 꽃을 보고 앉아 있는 사람의 가난한 마음,
다시는 생각하지 않으려던 사람의 초록빛 목소리
다시는 생각하지 않으려던 사람의 어질디 어진 눈길이다.

휩쓸려 가는 것은 바람이다.

채찍에 구둣발에 몽둥이와 총칼 그 비밀한 그물에 쫓기이는
쓸쓸한 황톳벌 침침한 부둣가 창백한 문명의 거리
아무에게도 말 할 곳 없는
약하디 약한 사람들의 공포의 심장 굶주린 창자
낮에도 으르렁거리는
강한 자 횡포한자 무법한 자들의 나라의 맹수들의 목덜미
때 무더기의 내일의 허물어져가는 자들의 뼈다귀

휩쓸려 가는 것은 바람이다 .

저 바다에서 아침에서 초록의 별판에서 솟아나는
눈이 부신 찬란한 새로운 나라사람들의 옛된 소리
소년들의 깃발의 보고 싶은 나라사람들의 합창이다 .
아 어제의 것 사라져가야 할 것들의 죽음
죽은 자는 진실로 죽은 자들이 장사하는
빛이 있는 빛의 나라 빛의 대열의
휩쓸려가는 것은 바람
휩쓸려 가는 것은 바람이다.

새 아리랑

시 : 문 정 희
낭송 : 이 정 선

님은 언제나 떠나고 없고
님은 언제나 오지 않으니
사방엔 텅 빈 바람 텅 빈 향아리뿐
비어서 더욱 뜨거운 이 몸을 누가 알라
그 위에 소금 뿌려 한세월 곰삭은 이 노래를 누가 알라
기를 쓰고 피어나는 이 땅의 풀들 저 눈 밝은 것들은 알라

떠나는 발자국이 님인 것을 돌아오지 않는 것이 님인 것을
그래서 더 보고 싶은 것이 우리 님인 것을
아리랑 고개로 넘어간 님을 기다리며
밭고랑처럼 길고 긴 생애를 사느니

세상에는 없는 고무신 같은 된장국 같은
백자 향아리 같은 기막힌 이 사랑을 누가 알라

냉수 한 사발의 사랑이 폭풍보다 더 무서운 힘인 것을
너무 울어 가벼워질 대로 가벼워진 이 살갓이
지진보다 더 무서운 힘인 것을
님과 나 사이에는 꽃이라고 할까 새라고 할까
청산처럼 숨 쉬는 아름다운 생명이 있어
아리랑 아리랑 아라리요
온몸으로 흔들리는 노래를 부르며
이 땅에는 사시사철 기다림이 피어나느니
곁에 있는 것은 님이 아니리 안을 수 있는 것은 님이 아니리
결혼한 것은 님이 아니리 멀리 있는 것
그래서 두 눈이 아리도록 그리운 것만 우리 님이리 아리랑이리
홀로 푸른 하늘 바라보면서
푸른 하늘 굽이굽이 새겨둔 설움
바라만 보아도 말갭게 차오르는 눈물
질경이 같은
영정귀 같은
뛰약별 같은 어지럽고 슬픈 살 냄새
허리 구부리고 울던 흰옷들의 쓰라린 사랑이여
천 굽이로 살아나는 아리랑이여

촉석루차관상운

시 : 다산 정약용

낭송 : 이 종 숙

오랑캐의 바다를 동으로 바라보며
술한 세월 흘러,
붉은 누각 우뚝이
산과 언덕을 베고 있네.
그 옛날 꽃다운 물위론 가인의 춤추는 모습 비추었고,
단청 매긴 기둥엔
길이 장사가 남아있네

전장터로 봄바람 불어
초목을 휘어 감고
황성에 밤비 내려
안개 낀 물살에 부딪히네.
지금도 영롱한 영혼이
남아 있는 듯
삼경에 촛불 밝히고
강신제를 올리네.

가시

시 : 정 호 승
낭송 : 이 주 화

지은 죄가 많아
흙뻑 비를 맞고 봉은사에 갔더니
내 몸에 꽃들이 피어나기 시작했다.

손등에는 채송화가
무릎에는 제비꽃이 피어나기 시작하더니
야윈 내 젖가슴에는 장미가 피어나
똑똑 눈물을 흘리기 시작했다.

장미같이 아름다운 꽃에
가시가 있다고 생각하지 말고
이토록 가시 많은 나무에
장미같이 아름다운 꽃이 피었다고 생각하라고

장미는 꽃에서 향기가 나는 게 아니라
가시에서 향기가 나는 것이라고
가장 날카로운 가시에서 가장 멀리 가는 향기가 난다고

장미는 시들지 않고 자꾸자꾸 피어나
나는 봉은사 대웅전 처마 밑에 앉아
평생토록 내 가슴에 피눈물을 흘리게 한
가시를 힘껏 뽑아내려고 하다가
슬며시 그만두었다.

어머니 기억

시 : 신 석 정
낭송 : 이 진 아

비오는 언덕길에 서서 그때 어머니를 부르던 나는 少年이었다
그 언덕길에서는 멀리 바다가 바라다 보였다.
빗발 속에 검푸른 바다는 무서운 바다였다.

어머니 하고 부르는 소리는 이내 메아리로 되돌아와 내 귓전에서 과도처럼 부서졌다.
아무리 불러도 어머니는 대답이 없고, 내 지친 목소리는 해풍 속에 묻혀 갔다.

층층나무 이파리에서는 어린 청개구리가 비를 피하고 앉아서 이따금씩 나를 물끄러미 바라보고 있었다.
나는 청개구리처럼 갑자기 외로웠었다.

썩아 ... 먼 바닷소리가 밀려오고, 비는 자꾸만 내리고 있었다.
언덕길을 내려오노라면 짙푸른 동백잎 사이로 바다가 흔들리고,
우루루루 먼 천둥이 울었다.

자욱하니 흐린 눈망울에 산수유꽃이 들어왔다
산수유꽃 봉오리에서 노오란 꽃가루가 묻어 떨어지는 빗방울을 본 나는
그에 눈물이 펑펑 쏟아지고 말았다

보리가 무두룩히 올라오는 언덕길에 비는 몇지 않았다.
문득 청맥죽을 훌훌 마시던 어머니 생각이 났다.
그것은 금산리란 마을에서 가파른 보리고갯 넘던 소년시절의 일이었다.

어머니의 그릇

시 : 정 일 근
낭송 : 이 충 관

어머니는 그릇이라 쓰고 읽으신다
그릇이 아니라 그릇이 바른 말이지만
어머니에게 그릇은 그릇이다
물을 담아 오신 어머니의 그릇을 앞에 두고
그릇, 그릇 중얼거리보면
그릇에 담긴 물이 편안한 수평을 찾고
어머니의 그릇에 담겨졌던 모든 것들이
사람의 체온처럼 따뜻했다는 것을 깨닫는다
나는 학교에서 그릇이라 배웠지만
어머니는 인생을 통해 그릇이라 배웠다
그래서 내가 담는 한 그릇의 물과
어머니가 담는 한 그릇의 물은 다르다
말하나가 살아남아 빛나기 위해서는
말과 하나가 되는 사랑이 있어야 하는데
어머니는 어머니의 삶을 통해 말을 만드셨고
나는 사전을 통해 쉽게 말을 찾았다
무릇 시인이라면 하찮은 것들의 이름이라도
뜨겁게 살아있도록 불러주어야 하는데
두툼한 개정판 국어사전을 자랑처럼 옆에 두고
서정시를 쓰는 내가 부끄러워진다

임진강에서

시 : 정 호 승
낭송 : 이 한 규

아버지 이제 그만 돌아가세요
임진강 셋강가로 저를 찾지 마세요
찬 강바람이 아버지의 야윈 옷깃을 스치면
오히려 제 가슴이 찡고 서럽습니다
가난한 아버지의 작은 벗단 같았던
저는 결코 눈물 흘리지 않았으므로
아버지 이제 그만 발길음을 돌리세요
삶이란 마침내 강물 같은 것이라고
강물 위에 부서지는 햇살 같은 것이라고
아버지도 저만치 강물이 되어
뒤돌아보지 말고 흘러가세요
이곳에도 그리움 때문에 꽃은 피고
기다리는 자는 새벽도 밝아옵니다
길 잃은 임진강의 왜가리들은
더 따뜻한 곳을 찾아 길을 떠나고
길을 기다리는 자의 새벽길 되어
어둠의 그림자로 햇살이 되어
저도 이제 어디론가 길 떠납니다
찬 겨울 밤하늘에 초승달 뜨고
초승달 비껴가며 흰 기러기떼 날면
그 어디쯤 제가 있다고 생각하세요
오늘도 셋강가로 저를 찾으신
강가에 얼어붙은 검불 같은 아버지

자화상

시 : 서 정 주
낭송 : 이 행 속

애비는 종이였다. 밤이 깊어도 오지 않았다.
과뿌리 같이 늙은 할머니와 대추꽃이 한 주 서 있을
뿐이었다.
어때는 달을 두고 풋살구가 꼭 하나만 먹고 싶다 하
였으나……
흑으로 바람벽 한 호롱불 밑에
손톱이 까만 에미의 아들.
갑오년이라든가 바다에 나가서는 돌아오지 않는다 하는
외할아버지의 술 많은 머리털과
그 크다란 눈이 나는 닮았다 한다.

스물세 해 동안 나를 키운 건 팔할이 바람이다.
세상은 가도가도 부끄럽기만 하더라.
어떤 이는 내 눈에서 죄인을 읽고 가고
어떤 이는 내 입에서 천치를 읽고 가나
나는 아무 것도 뉘우치진 않을란다.

찬란히 띄워 오는 어느 아침에도
이마 위에 얹힌 시의 이슬에는
몇 방울의 피가 언제나 섞여 있어
별이거나 그늘이거나 햇바닥 늘어뜨린
병든 수캐마냥 혈떡거리며 나는 왔다.

바다

시 : 유 치 환
낭송 : 임 미 란

이것뿐이로다
억만 년 가도
종시 내 가슴 이것뿐이로다
온갖을 내던지고
내 여기에 펼치고 나 누웠노니
오라 어서 너 오라
밤낮으로 설레어 스스로도 가눌 길 없는
이 설은 몸부림의 노래소리가 들리지 않느냐

오직 높았다 낮았다 놀러 덮은
태초 생겨날 적 그대로의 한 장 비정(非情)의 하늘 아래
구할 길 없는 절망과 회오와 슬픔과 노염에
짙고 덩굴고 부르짖어 못내 사는 나
때로는 스스로 달래어
무한한 온유(溫柔)의 기쁨 되어 창망히 잤아 누운 나
아아 내 안엔
낮과 밤이 으르대고 함께 사노라
오묘한 오묘한 사랑도 있노라
삼시에 하늘을 무찌르는 죽음의 포효도 있노라

아 아 어느 아슬한 하늘 아랜
만 년(萬年)을 다물은 채 움짖 않고
그대로 우주 되어 우주를 우러러 선 산악이 있다거니
오라 어서 너 오라
어서 와 그 산악처럼 날 달래어 일깨우라
아 아 너 오기 전엔
나는 영원한 광란의 불사신(不死身)
여기 내 가슴 있을 뿐이로다

빠져린 꿈에서만

시 : 전 봉 건
낭송 : 장 윤 진

그리라하면
그리겠습니다
개울물에 어리는 풀포기하나
개울속에 빛나는 돌멩이 하나
그렇습니다
고향에 것이라면 무엇 하나도 빠뜨리지 않고
지금도 똑똑하게 틀리는 일 없이 얼마든지
그리겠습니다

말을 하라면 말 하겠습니다
우물가에 늘어진 미루나무는 여섯 그루
우물 속에 노니는 큰 붕어도 여섯 마리
그렇습니다 고향에 일이라면 무엇하나 빠뜨리지 않고
지금도 생생하게 틀리는 일 없이 얼마든지 말하겠습니다

마당끝 큰 왜나무 아래로
삶은 강냉이 한 바가지 드시고
나를 찾으시던 어머니의 모습 가만히 읊기시던
그 발걸음 하나하나 나는 지금도 말하고 그럴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애써도 한 가지만은
그러나 아무리 몸부림쳐도 그것만은
내가 그리질 못하고 말도 못합니다

강이 산으로 변하길 두 번
산이 강으로 변하길 두 번
그리고도 더 많이 흐른
세월이 가로 세로 파 놓은
어머님 이마의 어둡고 아픈 주름살

어머님
꿈에 보는 어머님 주름살을 말로 하려면
목이 먼저 메이고
어머님 꿈에 보는 어머님 주름살을 그림으로 그리려면
눈앞이 먼저 흐려집니다
아아 이십 육년
빠져린 꿈에서만 피시는 어머니이시여

승무(僧舞)

시 : 조 지 훈
낭송 : 정 기 원

얇은 사(紗) 하이얀 고깔은
고이 접어서 나빌레라.

파르라니 깎은 머리
박사(薄紗)고깔에 감추오고,

두 불에 흐르는 빛이
정작으로 고와서 서러워라.

빈 대(臺)에 황촉(黃燭)불이 말없이 녹는 밤에
오동(梧桐)잎 잎새마다 달이 지는데,

소매는 길어서 하늘은 넓고,
돌아설 듯 날아가며 사뿐히 접어올린 외씨버선이여!

까만 눈동자 살포시 들어
먼 하늘 한 개 별빛에 모두오고,

복사꽃 고운 뺨에 아롱질 듯 두 방울이야
세사(世事)에 시달려도 번뇌(煩惱)는 별빛이라.

휘어져 감기우고 다시 접어 뺨는 손이
깊은 마음 속 거룩한 합장(合掌)인 양하고,

이 밤사 귀뚜리도 지새우는 삼경인데,
얇은 사 하이얀 고깔은 고이 접어서 나빌레라

청산도(靑山道)

시 : 박 두 진

낭송 : 정 명 지

산아, 우뚝 솟은 푸른 산아. 철철철 흐르듯 질푸른 산아. 술한 나무들, 무성히 무성히 우거진 산마루에 금빛 기름진 햇살은 내려오고, 뚱뚱 산을 넘어, 흰구름 건넌 자리 씻기는 하늘, 사슴도 안 오고, 바람도 안 불고, 너멋 골 골짜기서 울어 오는 뻐꾸기…….

산아, 푸른 산아. 네 가슴 향기로운 풀밭에 엎드리면, 나는 가슴이 울어라. 흐르는 골짜기 스며드는 물소리에 내사 줄줄줄 가슴이 울어라. 아득히 가버린 것 잊어버린 하늘과, 아른아른 오지 않는 보고 싶은 하늘에, 어쩌면 만나도질 불이 고운 사람이, 난 혼자 그리워라. 가슴으로 그리워라.

티끌 부는 세상에도, 벌레 같은 세상에도, 눈 맑은 가슴 맑은 보고지운 나의 사람. 달밤이나 새벽녘, 홀로 서서 눈물 어릴 불이 고운 나의 사람. 달 가고, 밤 가고, 눈물도 가고, 티어 울 밝은 하늘 빛난 아침 이르면, 향기로운 이슬밭 푸른 언덕을, 총총 달려도 와 줄 불이 고운 나의 사람.

푸른 산 한나절 구름은 가고, 골 넘어, 골 넘어, 뻐꾸기는 우는데, 눈에 어려 흘러가는 물결 같은 사람 속, 아우성 쳐 흘러가는 물결 같은 사람 속에, 난 그리노라. 너만 그리노라. 혼자서 철도 없이 난 너만 그리노라.

푸른 하늘 아래

시 : 박 두 진

낭송 : 정 순 자

내게로 오너라. 어서 너는 내게로 오너라.
불이 났다. 그리운 집들이 타고, 푸른 동산, 난만한 꽃밭이 타고,
이웃들은, 이웃들은, 다 쫓기어 울며 울며 흩어졌다.
아무도 없다.

이리들이 으르댄다. 양떼가 무찔린다.
이리들이 으르대며, 이리가 이리로 더불어 싸운다.
살점들을 물어 뺏다. 피가 흐른다.
서로 죽이며 자꾸 서로 죽는다.
이리는 이리로 더불어 싸우다가 이리는 이리로 더불어 멸하리라.

처참한 밤이다.
그러나 하늘엔 별-별들이 남아 있다.
날마다 아직은 해도 돈는다. 어서 오너라.
황폐한 땅을 새로 파 이루고, 너는 나와 씨앗을 뿌리자.
다시 푸른 산을 이루자. 붉은 꽃밭을 이루자.

정정한 푸른 장생목도 심그고
한철 났다 스러지는 일년초도 심그자.
갓나무, 오얏, 복숭아도 심그고, 들장미, 석죽, 산국화도 심그자,
싹이 나서 자라면, 이어, 붉은 꽃들이 피리니……

새로 푸른 동산에 금빛 새가 날아오고,
붉은 꽃밭에 나비 꿀 벌떼가 날아들면, 너는, 아아,
그때 나와 얼마나 즐거우랴.
삶게 흩어졌던 이웃들이 돌아오면,
너는 아아 그때 나와 얼마나 즐거우랴.
푸른 하늘, 푸른 하늘 아래 난만한 꽃밭에서, 꽃밭에서,
너는, 나와, 마주, 춤을 추며 즐기자.
춤을 추며, 노래하며 즐기자. 울며 즐기자.
어서 오너라.……

철조망에 걸린 편지

시 : 이 길 원
낭송 : 정 영 기

어머니,
거친 봉분을 만들어 준 전우들이
제 무덤에 철모를 얹고 떠나던 날
피를 먹은 바람만 흐느끼듯 흐르고 있었습니다
충성은 멎었으나 술한 전우들과 버려지듯 묻힌 무덤 가엔
가시 면류관
총소리에 놀라 멎은 기차가 녹이 슬고
쓰러질 때까지 견힐 줄 모르는 길고 긴 철조망
겹겹이 둘러싸인 덕분에 자유로워진 노루며 사슴들이
내 빈약한 무덤가에 한가로이 몰려오지만
어머니, 이 땅의 허리를 그렇게 묶어버리자
혈맥이라도 막힌 듯 온몸이 싸늘해진 조국은
굳어버린 제 심장을 녹일 수 없답니다
우리들의 뜨거운 피를 그렇게 마시고도
더워질 줄 모르는 이 땅의 막힌 혈관을
이제는 풀어야겠습니다
그리고 어머니,
식어버린 제 뼈 위에 뜨거운 흙 한줌 덮어줄
손길을 기다리겠습니다
무덤 가에 다투어 피는 들꽃보다
더 따듯한 손길을.

금강산은 길을 묻지 않는다

시 : 이 근 배

낭송 : 정 정 채

새들은 저희들끼리 하늘에 길을 만들고
물고기는 너른 바다에서도 길을 잃지 않는데
사람들은 길을 두고 길 아닌 길을 가기도 하고
길이 있어도 가지 못하는 길이 있다.
산도 길이고 물도 길인데
산과 산 물과 물이 서로 돌아누워
내 나라의 금강산을 가는데
반세기 넘게 기다리던 사람들
이제 봄, 여름, 가을, 겨울을
앞 다투어 길을 나서는 구나
참 이름도 개골산, 봉래산, 풍악산
철따라 다른 우리 금강산
보라, 저 비로봉이 거느린 일만 이천 밧부리
우주만물의 형상이 여기서 빛고
여기서 태어났구나
깎아지른 바위는 살아서 뛰며 놀고
흐르는 물은 은구슬 옥구슬이구나
소나무, 잣나무는 왜 이리 늦었느냐 반기고
구룡폭포 천둥소리 닫힌 세월을 깨운다
그렇구나
금강산이 일러주는 길은 하나
한 핏줄 칭칭 동여매는 이 길 두고
우리는 너무도 먼 길을 돌아왔구나
분단도 가고 철조망도 가고
형과 아우 겨누던 총부리도 가고
이제 손에 손에 삼과 팽이 들고
평화의 씨앗, 자유의 씨앗 뿌리고 가꾸며
오순도순 잘 사는 길을 찾아왔구나
한 식구 한술밥 끓이며 살자는데
우리가 사는 길 여기 있는데
어디서 왔느냐고 어디로 가느냐고
이제 금강산은 길을 묻지 않는다.

떡라의 길

시 : 이 기 철
낭송 : 정 환 기

걸어가면 지상의 어디에 떡라가 흐르고 있을 것인데
나는 갈 수 없네. 산 첩첩 물 중중
사람이 수자리 보고 짐승의 눈빛 번개쳐
갈 수 없네

구강 장강 물 구비치나 아직 언덕 무너뜨리지 않고
낙타를 탄 상인들은 욕망만큼 수심도 깊어
이 물가에 사금과리 같은 꿈을 묻었다
어디서 이소(離騷) 한 가닥 바람에 불려오면
내 지상에서 얻은 병 모두 쓸어 저 강물에 띄우겠네

발목이 시도록 걸어가는 나날은
차라리 삶의 보석을 갈무리한다고
상강으로 드는 물들이 뒤를 돌아보며 주절대지만
문득 신발에 묻은 흙을 보며 떡라의 길이 꿈밖에
있음을 깨닫고
혼자 피었다 지는 꽃 한 송이에 눈 닿는 것도
이승의 인연이라 생각한다

일생이 아름다워서 아름다운 사람은 없다
일생이 노역과 상처 아문 자리로 얼룩져 있어도
상처를 길 들이는 마음 고와서 아름다운 사람은 있다
때로 삶은 우리의 걸음을 비뚤어지게 하고
毒물은 역설을 아름답게 하지만
떡라 흐르는 물빛이 죽음마저도 되돌려주지는 못한다
아무도 걸어온 제 발자국 헤아린 자 없어도
발자국 뒤에 남은 혈흔 쌓여
한 해가 되고 일생이 된다

독도 만세

시 : 이 근 배
낭송 : 조 성 식

하늘의 일이었다
처음 백두대간을 밟고
해 뜨는 쪽으로 바다를 앗힐 때
날마다 태어나는 빛의 아들
두 손으로 받아 올리라고
여기 국토의 솟을 대문 독도를 세운 것은
누 억년 비, 바람 이겨내고
높은 파도 잠재우며
오직 한반도의 억센 뿌리
눈 부릅뜨고 지켜왔거니
이 홀로 우뚝 솟은 봉우리에
내 나라의 혼불이 타고 있구나

독도는 섬이 아니다
단군사직의 제단이다
광개토대왕의 성벽이다
바다의 용이 된 문무대왕의 뿔이다
불을 뿜는 충무공의 거북선이다
최익현이다, 안중근이다, 윤봉길이다
아니 오천년 역사이다
칠천만 겨레이다

누가 함부로
이 성스러운 금표(禁標)를 넘보겠느냐
백두대간이 젖을 물려 키운 일본열도
먹을 것, 입을 것을 일러주고
말도 글도 가르쳤더니
먼 옛날부터 들고양이처럼 기어와서

우리 것을 빼앗고 훔치다가
끝내는 나라까지 삼키었던
그 죄값 치르기도 전에
어찌 간사한 혀를 널름거리는 것이냐

우리는 듣는다
바다 속 깊이 끓어오르는
용암의 소리를
오래 참아온 노여움이
마침내 불기둥으로 솟아오르려
몸부림치는 아우성을
오냐! 한 발짝만 더 나서라
이제 독도는 활화산이 되어
일본 열도를 침몰시키리라
아예 침략자의 종말을 보여주리라

그렇다
독도는 사랑이고 평화이고 자유이다
오늘 우리 목을 놓아 독도 만세를 부르자
내 국토의 살 한점 피 한방울도
함부로 건드리지 못하게
서로 얼싸 부둥켜안고
영원한 독도선언을 외치자
하늘도 땅도 바다도 목청을 여는
독도 만세를 부르자

풀리는 한강가에서

시 : 서 정 주
낭송 : 조 수 향

강물이 풀리다니
강물은 무엇하러 또 풀리는가
우리들의 무슨 서름 무슨 기쁨때문에
강물은 또 풀리는가

기러기같이
서리 묻은 설달의 기러기같이
하늘의 어름장 가슴으로 깨치며
내 한평생을 울고 가려했더니

무어라 강물은 다시 풀리어
이 햇빛 이물결을 내게 주는가

저 민들레나 쪽잎풀 같은것들
또 한번 고개숙여 보라함인가

황사 언덕
꽃 상여
떼 과부의 무리들
여기 서서 또 한번 더 바라보라 함인가

강물이 풀리다니
강물은 무엇하러 또 풀리는가
우리들의 무슨 서름 무슨 기쁨때문에
강물은 또 풀리는가

서울로 가는 전봉준

시 : 안 도 현
낭송 : 조 채 성

눈 내리는 만경(萬頃) 들 건너가네
해진 짚신에 상투 하나 떠가네
가는 길 그리운 이 아무도 없네
녹두꽃 자지러지게 피면 돌아올거나
울며 울지 않으며 가는
우리 봉준이
풀잎들이 북향하여 일제히 성긴 머리를 푸네

그 누가 알기나 하리
처음에는 우리 모두 이름 없는 들꽃이었더니
들꽃 중에서도 저 하늘 보기 두려워
그늘 깊은 땅속으로 젖은 발 내리고 싶어 하던
잔뿌리였더니

그대 떠나기 전에 우리는
목 선 그대의 칼집도 찾아 주지 못하고
조선 호랑이처럼 모여 울어 주지도 못하였네
그보다도 더운 국밥 한 그릇 말아 주지 못하였네
못다 한 그 사랑 원망이라도 하듯
속절없이 눈발은 그치지 않고
한 자 세 치 눈 쌓이는 소리까지 들려오나니

그 누가 알기나 하리
겨울이라 뽕뽕 숨어 우는 우리나라 풀뿌리들이
입춘 경칩 지나 수군거리며 봄바람 찾아오면
수천 개의 푸른 기상나팔을 불어 제낄 것을
지금은 손발 묶인 저 얼음장 강줄기가
옥빛 대님을 홀연 풀어 헤치고
서해로 출렁거리며 쳐들어갈 것을

우리 성상(聖上) 계읍신 곳 가까이 가서
녹두알 같은 눈물 흘리며 한 목숨 타오르겠네
봉준이 이 사람아

그대 갈 때 누군가 찍은 한 장 사진 속에서
기억하라고 타는 눈빛으로 건네던 말
오늘 나는 알겠네

들꽃들아
그날이 오면 닭 울 때
흰 무명 띠 머리에 두르고 동진강 어귀에 모여
척왜척화 척왜척화 물결 소리에
귀를 기울이라

목마와 숙녀

시 : 박 인 환
낭송 : 채 광 숙

한잔의 술을 마시고
우리는 버어지니아 울프의 생애와
목마를 타고 떠난 숙녀의 옷자락을 이야기 한다
목마는 주인을 버리고 거저 방울 소리만 울리며
가을 속으로 떠났다. 술병에서 별이 부서진다
그러한 잠시 내가 알던 소녀는
정원의 초목 옆에서 자라고
문학이 죽고 인생이 죽고
사랑의 진리마저 애증의 그림자를 버릴 때
목마를 탄 사랑의 사람은 보이지 않는다
세월은 가고 오는 것
한 때는 고립을 피하여 시들어가고
이제 우리는 작별하여야 한다
술병이 바람에 쓰러지는 소리를 들으며
늙은 여류 작가의 눈을 바라보아야 한다
....등대에....
불이 보이지 않아도
거저 간직한 폐시미즘의 미래를 위하여
우리는 처량한 목마소리를 기억하여야 한다
모든 것이 떠나든 죽든
거저 가슴에 남은 희미한 의식을 붙잡고
우리는 버어지니아 울프의 서러운 이야기를 들어야 한다
두개의 바위 틈을 지나 청춘을 찾은 뱀과 같이
눈을 뜨고 한잔의 술을 마셔야 한다
인생은 외롭지도 않고
거저 잡지의 표지처럼 통속하거늘
한탄할 그 무엇이 무서워서 우리는 떠나는 것일까
목마는 하늘에 있고
방울소리는 컷전에 철렁거리는데
가을바람 소리는 내 쓰러진 술병 속에서 목메어 우는데

빼앗긴 들에도 봄은 오는가

시 : 이 상 화
낭송 : 천 미 선

지금은 남의 땅
빼앗긴 들에도 봄은 오는가
나는 온 몸에 햇살을 받고
푸른 하늘 푸른 들이 맞붙은 곳으로
가르마 같은 논길을 따라
꿈 속을 가듯 걸어만 간다.

입술을 다문 하늘아 들아
내 맘에는 나 혼자 온 것 같지를 앓구나
네가 끄을었으나 누가 부르더냐
답답위라 말을 해다오
바람은 내 귀에 속삭이며
한 자국도 썼지마 옷자락을 흔들고
종다리는 울타리 너머
아까시 같이 구름 뒤에서 반갑다 읊네

고맙게 잘 자란 보리밭아
간밤 자정이 넘어 내리던 고운 비로
너는 삼단 같은 머리를 감았구나.
내 머리조차 가뻐하다.

혼자라도 기쁘게 나가자
마른 논을 안고 도는 착한도랑이
젓먹이 달래는 노래를 하고 제 혼자 어깨춤만 추고 가네

나비 제비야 깎치지 마라
맨드라미 들마꽃에도 인사를 해야지
아주까리 기름을 바른 이가 매던 그 들이라
다 보고 싶다

내 손에 호미를 쥐어다오
살찐 젓가슴 같은 부들운 이 흙은
팔목이 시도록 매고
좋은 땀조차 흘리고 싶다

강가에 나온 아이와 같이
짚도 모르고 끝도 없이 닫는 내 혼아
무엇을 찾느냐 어디로 가느냐
우스웁다 답을 하려무나

나는 온 몸에 꽃내를 띠고
푸른 웃음 푸른 설움이 어우러진 사이로
다리를 절며 하루를 걷는다
아마도 봄 신령이 잡혔나 보다
그러나 지금은 들을 빼앗겨 봄조차 빼앗기겠네

바다

시 : 유 치 환
낭송 : 최 경 애

이것뿐이로다
억만 년 가도
종시 내 가슴 이것뿐이로다
온갖을 내던지고
내 여기에 펼치고 나 누웠노니
오라 어서 너 오라
밤낮으로 설레어 스스로도 가눌 길 없는
이 설은 몸부림의 노래소리가 들리지 않느냐

오직 높았다 낮았다 놀러 텃은
태초 생겨날 적 그대로의 한 장 비정(非情)의 하늘 아래
구할 길 없는 절망과 회오와 슬픔과 노염에
짙고 덩굴고 부르짖어 못내 사는 나
때로는 스스로 달래어
무한한 온유(溫柔)의 기쁨 되어 창망히 잤아 누운 나
아아 내 안엔
낮과 밤이 으르대고 함께 사노라
오묘한 오묘한 사랑도 있노라
삼시에 하늘을 무찌르는 죽음의 포효도 있노라

아 아 어느 아슬한 하늘 아랜
만 년(萬年)을 다물은 채 움쩍 앓고
그대로 우주 되어 우주를 우러러 선 산악이 있다거니
오라 어서 너 오라
어서 와 그 산악처럼 날 달래어 일깨우라
아 아 너 오기 전엔
나는 영원한 광란의 불사신(不死身)
여기 내 가슴 있을 뿐이로다

어떤 노을

시 : 박 두 진
낭송 : 최 기 향

우박비 자욱하게 쏟아지고 그치고,
번개불 불 불어 팔팔되고 그치고,
우릉 우릉 천둥소리 우릉대고 그치고,

믿었던 모두는 도망하고 잠적하고,
믿었던 모두는 배반하고 떠나고,

멀디 먼

당신이 홀로서 걸어가는 별관에 노을이 젖어있다.
별관이 끝없이 바다로 이어지는
홀로서 걸어가는 당신의 전신이 노을에 젖어있다.

노을은 주황빛 보랏빛,
그 속에 장밋빛 그 속에 진달래빛, 그 속의 황금빛,
혹은 그 속에 선혈빛 임리히.

홀로서 걸어가는 당신의 발자국을 물들이고,
홀로서 안고 가는 당신의 젖빛 꿈을 물들이고,

홀로서 울고 가는 당신의 눈물을 물들이고,

별관엔,
뜨겁게 분출하던 어제의 만세소리
내일의 함성소리
이젠 없고,

다만

떼지어 뒤를 쫓는 이리 울음 들릴뿐,
당신이 들고가는
찢어진 기폭하나 바람에 필력이다.

그 우박비 그치고 적막하고,
번개불 그치고 적막하고,
천둥소리 그치고 적막하고,

저녁 해 끈두박혀 바다에
별은 아직 뜬지 않고,
노을로 불타는 주황빛 하늘 땅.

홀로서 걸어가는 당신의 별관에 노을이 젖어있다.
별관을 홀로 가는 당신의 전신이 노을에 젖어있다.

바람 잘 날 없어라

시 : 박 노 해
낭송 : 최 순 덕

바람 잘 날 없어라
내 생의 길에
온 등치가 흔들리고
뿌리마다 사무치고

아 언제나 그치나
한 고비 넘으면 또 한 고비
너무 힘들다
너무 아프다
이렇게 살아야 하나
이렇게 싸워야 하나

바람 잘 날 없어라
울지 마, 살아 있다는 것이다
오늘 이 아픔 속에 외로움 속에
푸르게 내가 살아 있다는 것이다

정동진

시 : 정 호 승
낭송 : 최 인 수

밤을 다하여 우리가 태백을 넘어온 까닭은 무엇인가
밤을 다하여 우리가 새벽에 닿은 까닭은 무엇인가
수평선 너머로 우리가 타고 온 기차를 떠나보내고
우리는 각자 가슴을 맞대고 새벽 바다를 바라본다

해가 떠오른다
해는 바다 위로 막 떠오르는 순간에는 바라볼 수 있어도
성큼 떠오르고 나면 눈부셔 바라볼 수가 없다

그렇다
우리가 누가 누구의 해가 될 수 있겠는가
우리는 다만 서로의 햇살이 될 수 있을뿐
우리는 다만 서로의 파도가 될 수 있을뿐
누가 누구의 바다가 될 수 있겠는가

바다에 빠진 기차가 다시 일어나 해안선과 나란히 달린다
우리가 지금 다정하게 철길 옆 해변가로 팔장을 끼고 걷는다 해도
언제까지 함께 팔장을 끼고 걸을 수 있겠는가

동해를 향해 서 있는 저 소나무를 보라
바다에 한쪽 어깨를 지친 듯이 내어준 저 소나무의 마음을 보라
내가 한때 긴 머리카락을 휘날리며 기대었던
그 어깨처럼 편안하지 않은가

또다시 해변을 따라 길게 뻗어나간 저 철길을 보라
기차가 밤을 다하여 평생을 달려올 수 있었던 것은
서로 평행을 이루었기 때문이 아니겠는가
우리 굳이 하나가 되기 위하여 노력하기보다
평행을 이루어 우리의 기차를 달리게 해야한다
기차를 떠나보내고 정동진은 늘 혼자 남는다
우리를 떠나보내고 정동진은 울지 않는다
수평선 너머로 손수건을 흔드는 정동진의 붉은 새벽 바다
어여빠라 너는 어느새 파도에 젖은 햇살이 되어 있구나
오늘은 착한 갈매기 한 마리가 너를 사랑하기를

석문(石門)

시 : 조 지 훈
낭송 : 최 진 자

당신의 손끝만 스쳐도 여기 소리 없이 열릴 돌문이 있습니다.
못 사람이 조바심치나 굳이 닫힌 이 돌문 안에는, 석벽 난간(石壁欄干) 열두 층계
위에 이제 검푸른 이끼가 앉았습니다.

당신이 오시는 날까지는, 길이 꺼지지 않을 촛불 한 자루도 간직하였습니다.
이는 당신의 그리운 얼굴이 이 희미한 불 앞에 어리울 때까지는, 천 년(千年)이 지
나도 눈감지 않을 저의 슬픈 영혼의 모습입니다.

길숙한 속눈썹에 향시 어리운 이 두어 방울 이슬은 무엇입니까?
당신의 남긴 푸른 도포 자락으로 이 눈썹을 씻으렵니까?
두 불은 옛날 그대로 복사꽃빛이지만, 한숨에 절로 입술이 푸르려 감을 어찌 합니
까?

몇 만 리 굽이치는 강물을 건너와 당신의 따스 손길이 저의 흰 목덜미를 어루만질
때, 그때야 저는 자취도 없이 한 줌 티끌로 사라지겠습니다.
어두운 밤하늘 허공 중천(虛空中天)에 바람처럼 사라지는 저의 옷자락은,
눈물어린 눈이 아니고는 보이지 못하오리다.

여기 돌문이 있습니다.
원한도 사무칠 양이면 지극한 정성에 열리지 않을 돌문이 있습니다.
당신이 오셔서 다시 천 년(千年)토록 앉아 기다리라고, 슬픈 비바람에 낡아 가는 돌
문이 있습니다.

논 개

시 : 변 영 로
낭송 : 한 병 호

거룩한 분노는 종교보다도 깊고
불 붙은 정열은 사랑보다도 강하다.

아, 강난콩 꽃보다도 더 푸른 그 물결 위에
양귀비 꽃보다도 더 붉은 그 마음 흘러라.

아립뭉치던 그 아미 높게 흔들리우며
그 석류속 같은 입술 죽음을 입 맞추었네.

아, 강난콩꽃보다도 더 푸른 그 물결 위에
양귀비꽃보다도 더 붉은 그 마음 흘러라.

흐르는 강물은 길이길이 푸르리니
그대의 꽃다운 혼 어이 아니 붉으랴.

아, 강난콩꽃보다도 더 푸른 그 물결 위에
양귀비꽃보다도 더 붉은 그 마음 흘러라.

넋

시 : 박 경 리
낭송 : 한 옥 례

장마 그친 뒤
또랑의 물 흐르는 소리 가늘어지고
달은 소나무 사이에 걸려 있는데
어찌자고 풀벌레는 저리 울어 쌓는가

저승으로 간 넋들을 불러내노라
쉬지 않고 구슬피 울어 쌓는가

그도 생명을 받았으니 우는 것일게다
작을 부르노라 울고
새끼들 안부 묻노라 울고
병들어서 괴로워하며 울고

배가 고파서 울고
죽음의 예감 못다한 한 때문에 울고
다 넋이 있어서 우는 것일 게다
울고 있기에 넋이 있는 것일 게다

사람아 사람아
제일 큰 은총 받고도
가장 죄가 많은 사람아

오늘도 어느 골짜기에서 떼죽음
당하는 생명들의 아우성 들려오는 듯

먹을 만큼 먹으면 되는 것을
비축을 좀 한들 그것쯤이야
만물의 영장인 인간의 지혜로 치자

채워도 채워도 끝이 없는 탐욕
하여,
가없는 넋들은 지상에 넘쳐흐르고
넋들의 통곡이 구천을 메우나니

출발을 위한 날개

시 : 황 금 찬
낭송 : 홍 성 란

선구자의 길은 험하고
또한 가난하다
하지만 언제나 광명을 찾고
길을 열어 현재를 미래로
날아오르게 한다

어둠 안에서 빛은 하늘이 되고
불의와 비정 안에서 선은
향기로운 장미의 꽃이 된다
이성의 칼날은
집 속에 숨어 있지 않고
바른 판단을 생명으로 하고 있다

우리가 바라는 내일의 소망은
더 크고 더 넓다
어제도 정의롭고
오늘도 의가 아닌 길은 가지 않지만
내일은 사랑으로 이루는 바다
그 바다 위에 구원의 배를 띄우라
이 일을 우리는 바라고 있느니

열매 없는 잎만 무성한
나무뿌리에 도끼를 놓았다고
예언하라
저 나단의 입을 빌어
하늘은 언제나 푸르라고
그렇게 일러야 하고

이 땅의 올바른 지혜들을 위하여
다윗의 가락을 빌어
노래하여야 한다
선구자의 길은 좁고 험하지만
그 길에 하늘의 광명이 있느니
그것을 선택하는 이 시대의
빛나는 양심이 되자.

